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역 사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만들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구촌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9호 2012년 1월 2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우익세력의 종말인가? 아니면 변화인가?

미 언론, 기독교 보수복음주의그룹의 '릭 샌토럼' 후보 지지변동 보도

롬니 대세론이 지배하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연승에 힘입어 경선 초반 승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롬니 대세론의 기반 중 하나였던 아이오와 코커스의 재검표 결과 롬니가 아닌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의 승리로 밝혀짐에 따라 롬니 진영은 크게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만약 경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샌토럼의 승리로 발표됐다면 롬니 대세론은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샌토럼의 돌풍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두 번의 이혼과 '개방혼' 문제로 논란의 정점에 선 전 미 연방하원의장 뉴트 깡그리치 후보가 승리를 거둠으로, 공화당 예비 경선 구도는 롬니, 샌토럼 그리고 깡그리치라는 삼각 구도로, 선블리 미트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대항마로 '2012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단언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고민이 있다. 물론 교인인 롬니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단'이며, 가톨릭 교인인 깡그리치는 국정 운영 능력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공화당을 대표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 문제다. 따라서 정치 현장에서 거의 못내기에 가까운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릭 샌토럼에게 지난 14일, 게리 바우어, 제임스 답슨 등과 같은 복음주의 진영 지도자 150명이 지지를 천명했다. 한마디로 기독교 우익 진영의 가치들을 지켜 나갈 보수주의자로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인증(?)을 해준 것이다.

미 언론은 이와 같은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행보에 대해 한마디로 미국 정치의 보수 진영의 퇴장 즉 기독교 우익 진영의 종말이다, 아니다 라고 한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연승 이후, 미트 롬니가 두 자리 수의 압도적 우세를 보이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깡그리치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 한마디로 판세가 며칠 사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앞서 열린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선두인 롬니에 대한 타 후보들의 포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수합병(M&A) 전문 베인 컴퍼니 설립자로 억만장자인 롬니의 '상위 1%' 이미지가 부각되며 대중적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물론교도인 롬니의 다소 진보적인 정책들이 티파티를 비롯한 공화당내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점이다. 일례로 롬니의 낙태 지지입장은 보수 기독교 종교색채가 짙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심한 역풍을 맞고 있다.

따라서 깡그리치의 급부상은 심상치 않은 바람으로 주목받는다. 그 이유는 바로 공화당내 보수파의 결



릭 샌토럼, 미트 롬니, 뉴트 깡그리치 후보

집이다. 첫 코커스였던 아이오와에서 돌풍의 핵이었으나 아직은 정치 꽃내기인 샌토럼에 비해 하원의장으로 당시 막강한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와 '맞짱'을 댔던 깡그리치가

더 신임을 얻으며 그에게로 중심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보수 유권자 층이 겹치던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19일 경선 중도 포기의사를 밝히며 깡그

리치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깡그리치 진영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깡그리치 상승세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변수들이 나타났다.

아이오와 코커스 재검 결과 1위가 롬니에서 샌토럼으로 뒤바뀐 것이 한 요인이다. 깡그리치로 향했던 보수 표심이 다시 샌토럼으로 선회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깡그리치는 역대 주자들을 주지 않았던 '여자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부인이었던 매리언이 '메가톤 굶' 폭탄선언을 준비 중이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롬니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수의 대안'인 깡그리치 또는 샌토럼을 지지하느냐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우익 진영은 14일, 릭 샌토럼을 '보수의 대안'으로 천명하면서, 롬니나 깡그리치가 아닌 7명의 자녀를 둔 샌토럼 후보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문서선교로 중국 대륙 깨운다!



7면

특별기고
최학일 목사(복음문서선교회)



13면

캄보디아의 이슬람화
운동을 분석한다 / 전호진 박사



15면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 이야기(2)
정신에 박사(시카고트리니티대학교수)

사 고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하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할렐루야 기독교백화점 (718)762-0011
한국서적 (718)762-1200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호산나서점 (626)810-0014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백화점 (323)766-8793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기타지역

커테너트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플로리다 템파한인장로교회 (813)881-0069
조지아 아틀란타 말씀사 (678)957-1021
일리노이 헤브론교회 (847)394-8454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큰무리교회 (301)476-7613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새한교회 (215)402-992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게사 (704)332-5656
시카고 사카고 기독교복음방송 (847)583-0191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2012년도 총회 강도사 고시 응시 공고

2012년 10월에 시행될 '강도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 본 총회 직영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2년 5월 이전에 졸업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일정기간 양성 받은 자

2. 응시 서류

- 고시청원서
- 이력서
- 신앙고백서
- 당회장 평가표
- 노회장 추천서
- 신학교 졸업장, 성적증명서, 학위(해당자), 강도사 인허증(해당자)
- 가족사진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 5x7 Size)
※ 총회 웹사이트(www.kosinusa.org)에서 [총회사무행정]-[총회문서자료실]-"총회서식모음"

3. 서류 제출

- 모든 응시서류는 2012년 5월 31일(목) 까지 제출함.
(단, 논문, 주해, 서면설교는 9월 30일까지 제출)
- 서류 제출처 : 홍창우 목사 (Rev. Chang Woo Hong)
1823 Sharpe Rd, Greensboro, NC 27406, USA
TEL. (336)402-9658
E-Mail : sepcphcw@gmail.com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할 것.
- 등기확인 우편(registered mail)은 받지 않음

4. 고시료

- 고시료 : \$300.00 (예비교육비 포함)

5. 고시 과목

- 목사고시를 위한 학습훈련 : 2012년 6월 중 예정, 장소는 추후 발표
- 필기고시 : ①교회사(초대, 중세, 현대) ②조직신학 ③신약성경 ④구약성경 ⑤신약신학 ⑥구약신학 ⑦한국교회사 (이상 7과목)
※ 미국장로교회는 노회에서 치름(2009년 총회결의)
- 논술고시 : 논문, 주해, 설교(서면, 실기)
 - 논문
a. 논문제목 : "각 시대에 일어난 부흥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논하라"
-한인디아스포라 교회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b. 표지(제목),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도서 순으로 작성
c. 분량: Letter Size, 30Page
(문조 10pt, 행간 double or 200%, 여백은 2cm, 머리말0, 꼬리말1cm)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d. 참고서적은 10권 이상
e. '논문 작성법'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함
 - 주해
a. 예레미야 5:1-9
b. 분량: Letter Size 20Page
(문조 10pt, 행간 double or 200%, 여백은 2cm, 머리말0, 꼬리말1cm)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 설교
a. 요한복음 13:1-11
b. 30분 분량의 설교를 원고(Full manuscript)로 제출
c. 동일 본문으로 5분 설교 실기시험

4) 면접고시

- ① 논문과 주해에 대한 질의
- ② 가정생활, 경건생활, 연구생활, 목회윤리 등에 대한 질의
- 5) 면접장소 : 제28회 총회 장소
※ 한국고신에서 2011년 10월 이전 강도사인허를 받은 자는 위 과목 중 필기고시 면제

6. 고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3:00 예정
- 장소 : 2012년 총회 소집 장소
-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추후에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www.kosinusa.org)를 참고할 것

7. 합격자 발표

- 2012년 총회 시
- 합격자는 총회와 소속 노회에 보고함.

8. 기타사항

모든 채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 합격처리되며, 조건부 합격은 없음

9. 고시 문의처

- 총회 고시부 부장 전병두 목사 (Rev. Byung Du Jun)
3360 Gamefarm Rd, Springfield, OR 97477
Tel: (541)741-9649, (541)510-5794
E-Mail : byungjun48@hotmail.com
- 총회 고시부 서기 박순철 목사 (Rev. Soon C. Park)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총회장 박종창 목사 고시부 부장 전병두 목사 고시부 서기 박순철 목사



시론

부딪침을 통한 성장



양준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토인비는 새로운 문명의 물결이 물러갈 때 우리는 문명의 바깥 요로부터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우리 모두가 이민생활에서 실감하고 있는 일이다. 새로운 미국의 문명과 기술, 영어와 사회제도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실상 그것들을 이룩한 사상이나 근본정신은 좀처럼 우리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직과 신뢰, 민주정신과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지고 발전되어 온 미국의 문화를 쉽게 외곽적인 것들만 모방하고 그 근본정신은 본받지 못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모순과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을 본다. 실제로 한 문화의 근본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 뿌리를 내리는 일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오랜 세월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되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교회 문화나 기독교의 외곽적인 형태를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배 참석, 찬송, 기도, 헌금, 봉사 등... 겉으로 보이는 교회생활의 형태나 기독교적 행위의 외적 요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익숙 되어져 간다. 그러나 실제로 근본 기독교의 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는 의식과 작업이 신앙행위의 모방까지는 비교적 쉽게 우리를 이끌어 갈지는 몰라도 신앙의 생활화를 통한 나 자신의 인격의 변화는 오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내적 변화는 없이 외곽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3:5).

본래 기독교 신앙의 근본 요소들의 본질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와 능력이,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부활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에 중생과 성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 모든 능력이 체험을 통한 변화를 초래하듯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능력"도 신앙의 생활화를 통한 인격변화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변화도 없는 신앙생활은 세월이 지날수록 활력과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신앙인격의 형성과 성장과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딪침이 있어야 한다. 내 욕구와 부딪치고, 현실요구와 부딪치고, 불의와 부딪치고, 사회악과 부딪치고, 다수와 부딪치고, 고독과 부딪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부딪침에는 깨어짐의 아픔과 눈물이 따른다. 그러나 깨어짐의 아픔은 새로운 창조적 전구곡이며 파고 눈물은 성장의 비료가 된다. 부딪침이 두려워서 쉽게 주변과 타협하고, 감자와 다수의 편을 서기를 즐겨하며, 경건의 외형적 모양만을 가지고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마저 기만하는 삶의 안일시대(Comfort Zone)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신앙의 능력과 의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나 자신과 세상과의 부딪침의 연속이다. 우리가 그 부딪침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문서선교로 중국 대륙 깨운다!

CT, 공산당정권의 강력한 반선교정책 속 성공현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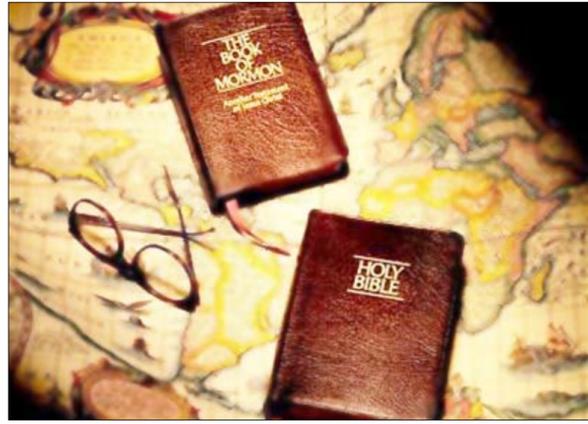
조선시대 후기, 유학에만 전념하던 선비들에게 서양의 학문은 커다란 도전이자 세계관의 흔들림이었다. 청나라를 통해 유입된 서양 서적들 중에서, "천주실의"는 한마디로 조선의 통치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즉 반상(班常)의 서열이 없는 천주 앞에서는 양반이나 종이나 다 동등하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바로 순교자들의 선혈을 조선반도에 물들이게 됐다. 이처럼 문서, 출판 선교는 문서나 출판물 통해 선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기독교 단행본이나

기독교 성격의 일반 단행본을 출판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선교지에서 문서 구입이나 해독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원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 방식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도소매와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 선교가 하늘로 육일 승천(旭日昇天)하는 용처럼, 주요 도시들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임스 담슨, 존 맥아더 그리고 필립 안시의 베스트셀러들을 포함한 1,300여 권들의 기독교 서적들이 잠자는 중국인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중국 정부의 혹독하고 엄한 박해 속에서도, 버젓이 중국 주요 도시나 대학가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기독교 출판 선교를 통한 문서 선교의 현장을 보도한다(Discipling the Dragon: Christian Publishing Finds Success in China - Despite stringent controls, 1,300 Christian books are available - legally - inside the communist country). CT는 출판 선교를 통해 중국 대륙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있다고 평한다.

작년 4월 초, 베이징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쇼왕(Shouwang) 교회는 야외에서 햇살과 빗살을 맞으며, 예배를 드리다가 봉변을 당하게 됐다. 시무하던 목회자 중 8명이 전격 체포돼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당국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공안은 건물 주인에게 더 이상의 리스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등록을 하지 못한 교회들이 박해와 수난을 받는 같은 시간에, 리 워렌, 필립 안시, 베츠 무어 그리고 C.S 루이스 목사의 기독교 고전들이나 베스트셀러들이 베이징 서점



넷을 통하거나 서점에서 먼저 선점하거나 구입하면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기독교 서적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시골지역에는 서점이 들어설 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주로 시골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의 문맹률과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환경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만 기독교 서적이 유통되고 있다.

결론으로, CT는 출판 선교가 중국 대륙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천안문 사태를 일으킨 주역들이 바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식인들이었다는 점

2008년 성경 1천만권, 유명목사 저서, 소설 등 폭발적 증가 기독교서적에 담긴 기독교정신 원리에 지식인들 접근

가나 대학가에서는 읽혀지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의 기독교 서적류에 대한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출판 선교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미티'(Amity)는 중국 본토에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 1998년에는 성경을 2백8십만 권 그리고 10년 후인 2008년에는 1천 만권을 출판할 정도로, 거의 5배 정도의 수요가 있다. 성경 외에도 리 워렌 목사의 베스트셀러(The Purpose Driven Life)도 십만 권이 그 사이 출간됐고, 같은 수준으로 기독교 소설(Francine Rivers의 'Redeeming Love')도 날개 돋힌 듯이 팔려 나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 대륙에 출판 선교의 물꼬를 열게 된 기점은 바로 2008년에 설립된 인터넷 서점, '보가음(報佳音)'(Baojiayin, Goodnewsin-china.com)의 성장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서적의 소매를 강력하게 금지해왔다. 그러나 '바오지아인'은 중국 선교를 위

해 지구촌 누구라도 기독교 서적이나 관련 서적을 구매하면 중국 현지까지 며칠만이면 택배로 우송될 정도로 중국 당국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기독교 서적들이 중국인들에게 교양이나 덕성을 함양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 기독교 서적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출판 선교의 성장을 가속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공자나 장자, 노자의 책들이 중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서구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기독교 서적들이 중국인들을 살찌우게 하는 요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인디애나 퍼듀 대학, 중국 사회와 종교센터 소장인 옌양 양(F. Yang)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1978년 등 소평에 의해서 주도된 경제 개혁의 부산물이다"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검정고양이건 하얀 고양이건 쥐(경제)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 경제론의 산물로, 중국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젊은 전문 직업인들이

너도 나도 기독교 서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판매되는 1,300여 권의 기독교 서적들의 내용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로 개인의 영성이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는 중국에 기독교를 알리는 내용들을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의 검열 하에서 출판이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출판 선교의 한계는 중국 출판사들이 출판 부수를 만 권 이하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에서 손쉽게 인터넷

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공산주의 보다는 실용중도노선으로 자본주의 원리를 수용하게 된 것도 중국 지식인들의 힘이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전문 직종의 젊은 중국인들이 점점 더 기독교 베스트셀러들과 접하게 되면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意自見)'이라는 말처럼, 기독교 서적들에 담긴 기독교 정신의 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갈무리된 기독교 원리들이 이들의 직장이나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발휘되지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대 표) (323) 665-9025(광고국) Fax: (323) 665-0056(편집국) (323) 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대 표) (718) 886-4424(편집국) Fax: (718) 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2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봄학기: 2012년 2월 13일~5월 25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어린이 워십 찬양 단원모집

Seeds Of Worship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 중인 "SOW(Seeds Of Worship) 어린이 & Youth 워십 찬양단"에서 새 해를 맞아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K-12학년으로 말씀과 찬양, 뮤지컬, 힙합댄스, 율동 등을 배우기를 원하고 관심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Voice Training도 해 줍니다. 함께 조인하면 미래의 영적 리더로 확실히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 ▶ 연습장소: 남가주별내리교회 [The Star Korean Church] 1201 S. Beach Blvd. #113-114 La Habra, CA90631 ▶ 연습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30 -3:30 (K-12학년) ▶ 가입방법: 1월 말까지 간단한 오디션을 본 후 참가 가능합니다. ▶ 연락 전화: 714)904-8434 에스더 박 전도사

2012 공화당 예비경선후보

인격과 성품 VS 국정수행능력

미 언론, 기독교 보수복음주의그룹의 '릭 샌토럼' 후보 지지변동 보도

(1면에서 계속)

소위 미국 정치에서 '크리스천 우익' 또는 '종교적 우파 운동'은 기독교인들 중 일부가 자유주의자에 맞서 '반 동성애운동(Anti-gay)과 '반 임신중절운동(Pro-life, 생명존중운동)을 주창하며 정치적으로 결집한 세력이다.

특히1980년 복음전도자인 제리 팔웰(Jerry Falwell)의 '도덕적 다수파'(Moral Majority)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팔웰은 임신중절을 여성의 권리라며 임신중절을 옹호하는 자유파 의원의 이름을 공표하며 이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들을 선거에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종교우파 운동은 1980년대 선거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인정하는 지방의원들을 쫓아내 낙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 우익 진영을 무시하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다. 현재 크리스천 우익 진영의 상속자인 '티 파티 운동'측에서도 샌토럼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내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크리스천 우익 진영의 행보에 대해 대다수 미디어들은 '드디어 우익 진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논조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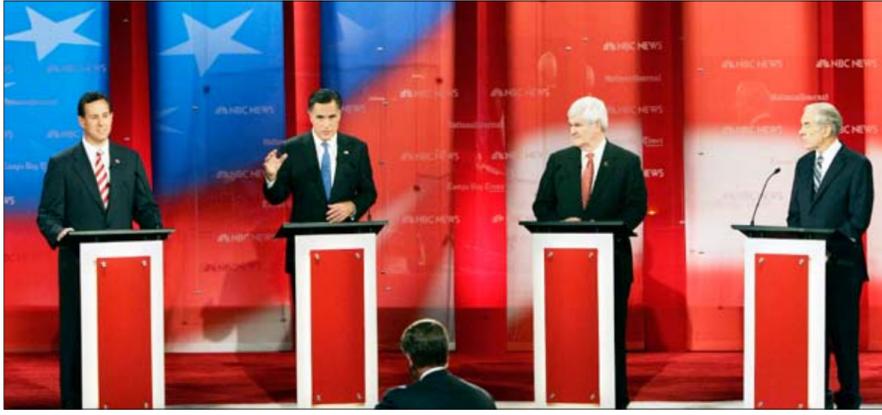
조지타운대학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카진(M Kazin)은 '더 뉴 퍼블릭'에 기고한 글(The End of the Christian Right)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정치 현장에서의 보수 진영의 영향력 쇠퇴를 해부한다.

1)제리 팔웰이나 제임스 담슨과 같이 잘 알려진 리더들이 진두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없었다.

2)크리스천 우익 진영을 책임질 차세대 리더들의 열정 부족 이 바로 점점 더 공격 현장에서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립대학 정치학 교수인 킵벌리 콩거(K Conger, The Christian Right and Republican State Politics의 저자)는 "쇠퇴나 종말이 아닌 크리스천 우익의 변화 즉 진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라고 미디어의 집중 포화에 맞서고 있다.

콩거 교수는 "과거에도 정치 현장에서 우익 진영의 몰락은 수십 차례나 예연됐다. 우익 진영의 노선 역시 다른 사회적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한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우익 진영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미디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균형감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포스트

한 보수 진영의 속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경륜과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진 롬니를

우위를 보인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또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 김그리치는 43%를 차지해 20%를 얻은 롬니를 두 배가 넘는 격차로 따

롬 니 경륜과 자금 동원능력 : 실용주의 노선 김그리치 과거 화려한 국정운영 : 구 보수 세력 샌 토 럼 청정 이미지와 도덕성 : 크리스천 우익진영

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빗 프렌치(D French)는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맞선 공화당의 대항마로서는 그래도 기업가로 주지사료 경륜을 구비한 미트 롬니를 지지하고 있는 진영을 대표한다(Evangelicals for Mitt). 그는 워싱턴포스트의 사실(Evangelicals leaders and the Santorum Endorsement: The old guard's last stand)을 통해 오늘날 크리스천 우익 진영의 영향력 감소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1)릭 샌토럼 후보를 지지한 150명의 리더 중 대부분이 무명의 리더십이며 2)이들의 지지 기반이 중북부이거나 없으며 3)군중 동원 능력이나 투표를 독려할 동기부여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따라서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보다는 능력이다"는 의견이 확산돼, 김그리치 전 하원의장을 추천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확산되고 있다.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타임지가 선정한 "1995년의 인물"로 지난 5월 대선 출사표를 던진 뒤 줄곧 형편없이 뒤져온 뉴트 김그리치 후보가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을 제치고 단숨에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것도 이러

지지는 실용주의 노선과 과거의 화려한 국정 운영을 앞세운 김그리치 후보를 지지하는 구 보수 세력, 릭 샌토럼 의원의 청정 이미지와 도덕성을 지지하는 크리스천 우익 진영으로 아직까지 단일 후보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으로, '2012 공화당 예비 경선'은 또 다시 대통령 후보의 인격과 성품이 먼저인가 아니면 국정 수행능력이 우선인가에 대한 승부처가 된다.

김그리치가 보수주의적 견해를 워낙 조리 있게 설명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혼외정사와 같은 불미스러운 과거보다는 오히려 그의 능력과 경험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익 조직인 '티 파티 패트리엇'의 마크 메를러 공동의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김그리치가 보수주의자들의 목표와 분노를 잘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사보다는 현재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최근 뉴욕타임스와 CBS뉴스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직과 세계적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최상의 후보를 묻는 항목에서 김그리치가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돌렸다. 공화당 유권자들이 김그리치의 불미스러운 과거보다는 그의 국정 수행능력과 당선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둔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월드지의 마빈 올라스키(Marvin Olasky)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정에도 충실하겠나?"며 김그리치 후보를 직접 반대하고 있다(Wanted: Extra-smart extroverted elephants).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김그리치의 파괴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이다. 오바마는 단단 경기 회복과 9% 가까운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재선 고지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그리치는 아직 오바마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방송 여론조사를 보면 롬니가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오바마와 맞붙을 경우 45%대47%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리라 예상됐지만, 김그리치가 나설 경우 오히려 51%대40%로 오바마가 그를 누를 것으로 예상됐다. 누가 과연 공화당의 대선 후보직을 따낼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선은 크리스천 우익 진영이 릭 샌토럼 후보를 지지했고, 그 결과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새소망 칼럼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전진하자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대망의 희망찬 새해 2012년을 맞아 앞에 있는 찬란한 희망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기 바란다. 결코 지나온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희망찬 걸음을 걸어가는 생활이 되기 바란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꿈은 성취된다. 유엔사무총장이었던 더그 햄머숄드의 수필에 소개된 이야기다. 콜럼버스의 선원 중 한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에 싸여 있었다. 그는 고향에서 구두 수

선을 하고 있었는데 늘 구두방 주인이 죽기 전에 돌아가서 그 가게를 인계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려는 위대한 희망을 향하여 가는 항로에서 은근히 늘 구두방 주인을 죽음을 바라며 낡은 구두 수선 점포를 끄조로 인계 받는다는 꿈에 머리가 가득 차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의 꿈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콜럼버스 선장의 꿈과 이 선원의 꿈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콜럼버스는 전진하는 인생이요, 이 선원은 뒤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인생이다. 콜럼버스의 소망은 앞에 있고 이 선원의 소망은 뒤에 있다. 새 세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항해하는 자와 요행을 꿈꾸며 걱정 속에 항해하는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지난날의 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을 거울삼아 깊이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생각을 바꾸고 새 출발하여 더욱 발전 지향적이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기 바란다. 기독교는 미래 지향적인 종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달리던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듯이 우리가 전진을 멈추고 머물러있어도 안된다(히 10:35-39).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나간 과거를 추구하고, 과거에 좋지 못했던 것들에 매어 서로 반목질하고 일부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 예수님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한 바울을 불러 쓰시면서 한 번도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를 귀하게 하는 분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누가 망하는가? 교만한 사람이 망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다가도 교만하면 그것이 한계요 끝장이다. 교회에서 쓸 만하다 싶어 무슨 직분을 맡겨 보면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것뿐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니까 순종과 봉사가 하기 싫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은 것이다. 사실 정말 모르는 사람은 잘 믿는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할 때에, 위기가 온다. 찬양대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연습을 게을리 한다. 오히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고 계속 노력하여 찬양을 은혜롭게 잘한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오히려 합창을 잘 못한다고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지휘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므로 조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한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고 성공한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힘을 얻고 영적 능력을 받기 때문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2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어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2년 1월 28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2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회칼럼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담임)



이판사판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중에 결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두고 '이판사판' 싸운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광경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불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승려들 중에 일부는 '이판승'(소승불교)이라 하여 산에서 불도를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며 도를 닦았으며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 또 한 부류는 '사판승'(대승불교)이라 하여 결혼도 하고 부를 축적하였으며 타종교와 같이 대중 속에서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산에서 도를 닦던 이판승이 내려와 호화롭게 처자식을 거느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혀 사판승에게 "나는 날마다 도를 닦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너는 이렇게 나태하고 호화롭게 지내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자 사판승이 하는 말이 "나는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 시주를 받아 절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설법을 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고 어쩌다 산에 가서 보면 너는 잠만 자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며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 닦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판사판" 싸운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언젠가 꽃꽂이를 유심히 본적이 있었습니다. 정결하고 아름다운 꽃꽂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긴 잎은 뒤에서 안정감 있게 서 있고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꽃을 꽂으면 조화로운 꽃 장식이 됩니다. 만약 큰 잎이 달린 장식을 앞에 새우고 작은 꽃을

뒤로 한다면 꽃 장식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우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타협을 하는 사회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TV를 통해 한 방글라데시인의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 한국인 부인과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직업이 100명이 넘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생활이 괜찮아지자 한국에서 가장 비싼 차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펑크를 내거나, 차에 흠집을 내는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 여권을 보여주며 자신도 대한민국의 시민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부는 함께 슬퍼하며 한국의 이민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 사이에는 '억울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악플로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

만약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이 이 같은 일을 겪으며 살고 있다면 이곳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까지 인종차별을 들먹이며 항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음악목사님의 조카가 대학을 지원하고 입학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교수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중 한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수 있겠나?" 이 질문에 조카는 교수님 그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며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에 공부 좀 조금이라도 더 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약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비생산적인 질문을 한 교수의 강의

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 이 질문을 한 교수는 담당교수였습니다. 그 담당교수는 그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과는 아주 다른 학생이지만 합격을 시키면 공부는 잘할 것으로 믿고 합격을 시킬 것입니다. 또한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개인장학금을 주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생각과 차이가 나면 편당을 만들고 다툼을 합니다. 흑백논리가 분명하여 서로 양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단체와 기관들은 물론 조그마한 소그룹도 편당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판사판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 협력하여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 마음을 합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푸/ 른/ 초/ 장

박동서 목사

(세크라멘토 방주성교회)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서이며, 골로새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교회 근처에 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동서양 문화가 혼합된 도시의 세속화된 영향으로 복음이 변질되어 혼합주의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골로새교회를 향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라고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기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스티브 잡스가 그 한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지만, 겨우 만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969년 육군대령으로 복무 중

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 아무 것도 무덤 속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 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

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란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2000여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거나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세상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시절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가 바도기가 같은 지하 동굴의 집단 거주 유적지나, 카타콤같은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의 예배유적들, 중세의 금욕적인 수도원들과 아프리카 사막의 신비스러운 교부들에 이르러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

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 할까요?

2.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와 같이 눈앞의 현실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밭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었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12:16-21). 현재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눈을 들어 위엣 것을 찾으며 위엣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꿈도 미래의 계획도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2절

세상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유혹합니다. "Diamond is forever!" 영원한 것은 오직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라는 상투적인 광고 문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육신의 말초적인 정욕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노예가 되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 세상을 주름잡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국가원수가 되어 무려 42년간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최장기 집권의 역사를 기록해 오다가 반정부 시위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유복민 배두인족 출신인 그는 밤미, 반 기독교의 가치를 내세우며 서방세계와 싸워 온 아랍, 아프리카, 이슬람맹의 절대적 지도자였지만 마침내 그 자녀들마저 참혹한 죽음을 맞으며 몰락하고 맙니다.

라는 것이로다"(전1:14). 바울 사도 역시 본문 바로 뒤에 말하기를, 세상에서 살 때에 땅에 속한 것들을 향한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3:5).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이 서신을 먼저 받았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권하기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란 예수님이 지금 좌정하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밭은 이 땅을

나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중시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겼으며,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는 영원한 천국에 두어야 함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세상에 두지 말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바울 사도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

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4:16-18).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시각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십니다. "또 비유로

3. 영원한 나라를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세계의 준비 과정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7면으로 계속)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크리스천의 눈으로

2012년 새해도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되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이다. 우리는 복을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복이란 글자를 새해가 시작할 때 대문에 붙여 놓는다. 매일 사용하는 숟가락에, 젓가락에, 베개에, 이불과 요에, 기둥에, 지붕에 복을 새겨 놓는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다. 초등학교생들에게 5복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수복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주로 사서삼경의 성경에 있는 오복을 말한다. 오복은 1)수:오래 사는 것 2)부:부자가 되는 것 3)강녕:건강한 것 4)유호덕: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5)고종명:천

미의 관심사로 삼게 만들었다. 셋째, 성경의 복사상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복에 대한 광적 집착현상을 낳았다. 구약에 빈번히 등장하는 복의 의미를 곡해하고 또 잘못 적용해온 데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다. 송 교수는 한국의 성도들은 중첩된 세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기복신앙의 수호자와 전파자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전도의 구호처럼 됐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니 예수를 믿어야만 복을 받는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가득차 있다. 어떤 복은 성경에 만 가지 이상의 복을 약속하

야함이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예언적 축복(창49장)으로 끝난다.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내림을 강조한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십일조를 통해서 주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약속하신다. 예수님도 복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사모할 것을 명령하셨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복으로 시작해서(계1:3) 복으로 끝난다(계22:7, 14).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계22:7).

따라서 성경의 복은 엄청나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믿는다.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죄이다.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일초도 살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시는 그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복은 무엇인가? 먼저 성경적인 복은 총체적인 복이다. 성경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영적인 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육적인 복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받은 복

는 복이다. 최고의 축복되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도 임마누엘이다. 성경은 다윗의 지속적인 승리도 임마누엘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복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누리려는 것들은 하나님의 복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은 엠1:3에서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셨다고 하셨다. 우리의 복은 지금 없어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신 복이다. 이미 소유한 복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은 이미 주신 것으로 누리게 된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하여 주시는 복도 약속하셨다.

또한 성경적인 복은 예수를 믿고 모신 내가 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예수를 믿은 내가 복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을 복주시는 것이 참 복이다. 아담을 복주시는 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도 다 같은 이유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위한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우리 교회는 주일예배 외에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 교회가 있습니다. 셀 교회는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가지는데 저는 셀 교회를 맡은 사람으로 셀 교회의 중요한 정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의 화두는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보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거창하게 부흥이나 성장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일 예배로 모이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셀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교회는 대 그룹과는 달리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 교회의 영적 DNA를 소개합니다.

첫째 셀교회는 가족 스피릿(Family spirit)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왜 사랑하고 돌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모임이 바로 셀교회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즉 상호 신뢰와 상호 책임입니다. 같은 형제이기에 기쁨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 아파하는 관계, 그리고 어려울 때 돌보는 이것이 바로 가족이 가지는 상호신뢰, 상호 책임입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삶을 함께 나눕니다. 한국 연속적인 오작교 농장을 보면 가족들은 기쁨 뿐 아니라 슬픔과 아픔, 실패도 함께 나눕니다.

셀교회, 가족처럼 섬기며 영적성장 이뤄야

두 번째 셀교회의 DNA는 섬기는 스피릿입니다.(Serving spirit).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은 위대함을 권력이나 소유물, 명성 지위의 측면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닌 섬김의 잣대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섬겼느냐 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합니다. 섬기는 종의 마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셀교회의 리더인 셀목자는 셀원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자입니다. 셀리더는 셀원들의 단점이 드러나도 비판보다 오히려 격려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말하십시오. 로버트리는 미국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이벌가운데 와이팅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로버트 장군을 중상모략 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로버트 장군 그대는 와이팅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장군은 '각하, 와이팅 장군은 이 시대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며 남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셀교회의 영적 DNA는 성장입니다. 셀은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고 자랍니다. 셀교회 공동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셀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부흥이 여러분이 속한 셀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1년이 지나도 번식하지 않는 셀교회는 암세포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영양분을 혼자서만 빨아먹고 다른 세포도 죽입니다. 성장이 없는 셀교회는 전적으로 셀목자의 책임입니다. 셀 교회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수를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서민들 사이에 구전되어온 5복은 장수, 부자, 건강, 자손, 치아가 튼튼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가운데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이 교회 안팎에서 매우 강하다. 이런 문제는 일단 교회의 영적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복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비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문제이다. 물론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토양과도 연결되어 있다. 한국인의 정신적 토양은 사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토양 위에 기독교가 전래됐다. 기복신앙은 복음으로 정신적인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타협된 부분이다.

합동신학교의 송인규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드는 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들었다. 둘째, 한국인의 전통 문화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머니즘 배경의 지대한 영향을 지적한다. 우리의 무교적 세계관은 길흉화복에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일을 삶에 있어 초

고 있다고 했다. 성경에 복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히브리어 베라카는 좋은 것(good)을 뜻한다. 주로 물질적 은택(material good)을 의미한다. 헬라어 '율로기야'는 주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선이나 유익을 의미하지만, 때로 물질적 유익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에 비해 마카리오스(makavrio)는 복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복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의(善意, good will)로서 영적 물질적 은택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 향유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은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것이 복이다(창1:28).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복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된다(창12:1-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 그 복은 이삭(창26장)과 야곱(창28장)과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내려간다. 족장 시대의 족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처럼 자녀들을 복주시는 것이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시작하고(창1:22, 28), 창세기의 마지막은

뿐 아니라, 현재의 복, 미래와 아니 영원한 세계의 복도 포함한다. 영육의 복이다. 모든 신령한 복과 모든 육신의 생활의 복이다. 다 포함한다. 한 순간이 아니고 한 영역이 아니고 삶의 전체에 미치는 복이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복이고 또한 좋은 것이다.

또한 성경적인 복은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을 주시는 그 분,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복을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태로 생각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오복의 개념도 그러하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이나, 받아누리고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성경적인 복이다. 세상의 5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단코 복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복의 불행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복이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여도 복이고, 가난해도 복이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초월하여서 복된 생활을 누린다.

또한 성경적인 복은 예수 안에 있

것이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의 확장의 시작이다. 사실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이시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다. 아담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열방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누리도록 섬기는 것이다.

새해를 보는 세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 북한과 이란의 사태들로부터 연초부터 온 세계가 시끄럽다. 특별히 새해를 맞아 재정압박의 계절을 지나는 모든 분들이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진 복이 삶의 모든 현장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를 받기를 축복한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영혼구원과 하나님나라의 확장되는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한다.

www.onnurisj.org

사역자 청빙

산호세온누리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역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대상 : 부목사(한어부) 전임사역자, 초등부(3학년 ~ 5학년) 파트사역자 청빙

부목사 자격:
-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M. Div학위)
- 체류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영주권자 선호)
- 목회 경험, 저자훈련 및 목회 전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

초등부 파트사역자 자격
- 정규 신학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자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 자기 소개서(목회 소명 간증 포함)
- 신학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부목사)
- 직전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필수) 외 1명의 추천서(부목사 지원자는 2명의 추천서)
- 셀교 CD 혹은 컴퓨터파일

제출처 Rev. Young Rhyon Kim
Onnuri Church of San Jose
890 Meridian Way, San Jose, CA 95126
이메일 주소: onnuriadmin@gmail.com(이메일접수가능)
교회 홈페이지 www.onnurisj.org
전화: (408)971-2353

제출 기한: 청빙시까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산호세 온누리 교회
Onnuri Church of San Jose
담임목사 김 영련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료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사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명 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료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기사제보와
문서신교
후원금
발송합니다.

45개국어
번역본
제공
가능
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의 탈라잉(TALAING)



탈라잉족은 방콕의 북쪽과 남쪽 지방과 코라트(Khorat), 칸 차 나 부리(Kanchanaburi), 로프부리(Lopburi), 파툼(Pathum), 타니(Thani), 수라트타니(Surat Thani), 라트 부리(Rat Buri) 등 주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탈라잉족은 몬(Mon)이라고 불리는 몬-크메르(Mon-Khmer)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탈라잉족은 주변의 타이족과 이미 동화했으며 자신들의 부족어(語)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탈라잉족은 북쪽지역에서부터 현재 태국과 미얀마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이주한 뒤 그곳에 정착하면서 최초의 대(大)문명을 이룩했다. 탈라잉족은 이 지역에서 쌀농사(wet-rice) 짓는 법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불교를 도입하고 자신들의 문자를 전했다. 5-8세기경 탈라잉 왕국은 절정기를 맞았으나 이후 수세기에 걸쳐 버마인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1757년, 탈라잉족이 버마인들에게 패했고 탈라잉족의 정치적 독립기는 끝났다. 오늘날 탈라잉족의 대부분은 당시 버마인들을 피해 도망쳐 생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삶의 모습

탈라잉족은 과거 300-400년 동안 촌락을 이루며 살았다. 이들의 가옥은 항상 동서(東西) 방향으로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타이(Thai)족의 가옥과 유사하다. 탈라잉족의 가옥은 직사각형이며,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나무틀로 지어진 형태다. 벽과 바닥은 대나무를 엮어 만든 매트로 깔고 초가지붕을 얹는다. 좀 더 부유한 탈라잉족은 벽과 바닥이 판자로 된 집에서 생활한다. 가옥의 앞쪽에 베란다가 있고 부엌은 뒤쪽에 위치한다. 각 마을마다 수도원이 있다.

상인과 장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탈라잉족은 영세농민들이다.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키운다. 탈라잉족의 주된 농작물인 쌀은 직접 소비되거나 환금(換金)작물로 이용된다. 농부들은 물소나 황소가 끄는 쟁기로 논밭을 경작한다. 야채, 사탕수수, 파인애플 등을

집안 정원에서 키운다. 부수적인 일로 남성들은 목수일과 벽돌 만들기를 하고, 여성들은 도기(陶器)를 만들거나, 천을 짜고, 바구니를 만든다. 남성들 중에는 전문 대장장이도 있다.

탈라잉족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부계중심은 아니지만 "집안영혼(house spirit)"에 관련되는 일에는 남성이 담당한다. 즉 "가정신(神)"은 남성 혈통을 따라 가장 서열이 높은 집에 모셔진다. "집안 영혼"의 닦거나 장식품들은 바구니에 담아 집의 동남쪽 기둥에 달아낸다.

탈라잉족은 공식적인 결혼식이 없다. 대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남성의 친구들이 여성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허락되고 신랑과 신부는 3년 동안 신부의 가족과 함께 산다. 그 이후에 부부는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미기 위해 분가한다.

신체적으로 탈라잉족이 타이족보다 더 키가 크고 힘이 세다. 오늘날 대부분의 탈라잉족은 타이족처럼 옷을 입는다.

신앙

탈라잉족은 종교를 매우 중요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숭배 사상과 불교가 혼합된 형태의 토속종교를 따른다. 다른 이들은 테라바다(Theravada) 불교도들이다. 전통적 "정령숭배자"들은 비생물체에도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신앙은 나무와 들판에 깃든 테와타오(tewatao)라고 알려진 영혼들의 존재를 믿는 힌두교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조상신"처럼 병을 가져오는 신들도 있고 카록(kalok)으로 불리는 신비한 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도 있다.

불교 승려들은 마을 사람들과 그 영혼들 사이에 중재자로 활동한다.

또한 무당(남녀 모두 가능), 의사, 점성가, 여자 마법사 등이 미신적으로 관련된 일을 행한다. 여자 마법사들은 종종 질병을 가져오거나 귀신에 씌이게 한다. 불교도들은 아픈 사람들은 공적(功績)을 많이 쌓이지 않아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픈 사람의 이름으로 불상을 만들 재물을 헌납한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당(주로 여성들)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혼령 춤(spirit dances)을 춘다. 그리고 나면 의사가 주문들을 읊으며 귀신을 내쫓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두 선교단체가 태국의 탈라잉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탈라잉족은 1% 미만이다. 탈라잉족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 많은 크리스천 일꾼들과 복음 자료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란 이슬람 성직자 "SNS는 죄를 짓는 것"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파급력을 확인한 이슬람권이 SNS에 대한 종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집트와 시리아 등 이슬람권에서 일어난 혁명의 작은 씨앗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의 한 고위 이슬람 성직자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이 반(反) 이슬람적(un-Islamic)이며 페이스북의 회원이 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이란의 ISNA 통신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슬람 공화국이자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나 어떤 특정 사항이 이슬람 규범에 일치하는지에 대해 고위 이슬람 성직자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보편적인데, 질문에 대한 이슬람 성직자들의 답변은 곧 이슬람 교리(decree)로 간주된다.

ISNA 통신사에 의하면, 이란의 고위 이슬람 성직자 사피 골파이가니(Lotfollah Safi-Golpaygani)는 페이스북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부도덕을 전파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는 이슬람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성직자는 "이러한 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이트의 회원이 되는 것은 죄"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종교적 영역을 전파하고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이트들은 괜찮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란 정부의 엄격한 제한과 감시 아래에서도 이란에는 1천7백만 명의 페이스북 가입자가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페이스북의 인기가 높은 편이며, 이란의 페이스북 가입자는 1천7백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5백만 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로의 접속을 막고 있으나 이란 국민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북한, 40년 연속 전세계 최악 '자유 없는 국가' 선정

미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9일 발표한 '2012년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 195개국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이로써 북한은 40년째 연속 '전세계 최악의 자유 없는 국가'로 선정됐다.

북한은 지난해와 같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항목에서 최하점인 7점을 기록했으며,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가 아예 없고 주민의 자유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거부당한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설명했다. 40년 연속 '최악 중 최악'으로 뽑힌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 등 9개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과 스웨덴 등과 함께 최고점을 받아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프리덤하우스 사라 쿡 아시아연구 분석관은 "북한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화폐개혁과 장마당 때문에 다소 나아졌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자유를 봤을 때 나아진 것이 없다"며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개방을 선택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로운 국가' 평가 기준으로 '제한 없는 정치경쟁'과 '주민 존중 분위기', '주민들의 독립적인 삶', '언론의 독립' 등을 평가 자료로 한다.

"부활절 달걀 초콜릿 팔지 말라"

영국성공회가 대형마트의 부활절 달걀 초콜릿 판매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영국성공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담은 '진짜 부활절 달걀(The Real Easter Egg)'이라는 이름의 밀크 초콜릿 달걀을 시판해 큰 수익을 거두자, 올해는 영국의 대형 마트 4곳에서 초콜릿 판매에 나서면서 영국성공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보도했다. 지난해 영국성공회는 매년 부활절을 맞아 판매해



오던 달걀 모양의 초콜릿에 좀 더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 달걀을 포장한 상자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스러운 금요일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 주일을 지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문구를 새겨, 일반인들 또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취지에서 시판했다. 특히 이 초콜릿을 공정무역을 통해 초콜릿을 만드는 1차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성공회는 시판되기 전인 2010년 10월부터 각 교구의 교회와 주일학교는 물론, 주요 상징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과 메일 등을 통해 부활절 달걀 초콜릿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선판매만으로 7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등 출시 10주 만에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메일 주문 제품으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초콜릿 달걀의 수익금은 영국기독교교구호단체인 '베이비 라이프라인'(Baby Lifeline)과 '트레이드크래프트 익스체인지'(Traidcraft Exchange)를 통해 아프리카의 고통 받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금으로 사용됐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성공회의 성공적인 판매를 눈여겨 본 영국의 주요 대형마트 체인 4곳에서 소위 '세속적인 부활절 달걀(Secular Easter Egg)'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공회 측은 "기존의 '진짜 부활절 달걀'은 예수가 부활하신 부활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수익금 전액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된 비영리적인 판매를 위한 것이었으나, 이들 마트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 10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북한이 올해로 10년째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선정됐다. 국제 오픈도어선교회(이하, 오픈도어)는 2일 홈페이지(<http://www.opendoorsusa.org>)를 통해 '세계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를 발표했다. 북한이 1위로 선정된 것은 올해로 연속 10년째.

(표) 종교박해지수 상위 5개국	
1	북한(1)
2	아프가니스탄(3)
3	사우디아라비아(4)
4	소말리아(5)
5	이란(2)

오픈도어는 "김일성이 북한에 독재정권을 세운 이후 북한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김정일에 이어 그의 아들이 독재정권을 세울 것을 피하고 있어 여전히 종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신적인 존재인 정치지도자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는 현재 5-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약 20-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픈도어선교회 칼 밀러 회장은 "지난달 김정일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은 것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만, 여전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에 뒤를 이어 2-10위는 무슬림 인구가 지배적인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이란,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예멘, 이라크, 파키스탄이 차지했다.

이번에 종교박해국가로 선정된 상위 국가 50개의 국가 중 38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여서 지난 한해 그 어느 곳보다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박해, 특히 기독교 박해가 두드러졌으며 그 여파는 올 한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지난해에도 상위 50위에 올랐던 국가들이지만, 대부분 지난해보다 종교박해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한 예로, 연초부터 지난 선행판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테러가 이어진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지난해 23위에서 13위로 박해지수가 상승했으며, '아랍의 봄'의 핵심국이었다 이집트의 경우도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무슬림시위대와 기독교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교회 테러 등 기독교 박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9위에서 4계단 상승한 15위로 기록됐다. 수단 또한 대선을 전후해 대권과 함께 석유와 물 등 자원을 둘러싼 남수단과 북수단의 갈등이 종교박해로 비화돼 지난해 35위에서 16위로 종교박해지수가 급상승했다.

한편, 21위를 차지한 중국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국가(약8000만 명)이며 여전히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정부와 소위 '고양이와 쥐처럼 쫓고 쫓기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오픈도어가 전 세계 종교박해지수가 높은 6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현장 근무자들의 보고서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법적인 종교 자유 유무, 기독교인들의 실제 종교 박해 현황, 교

코미널
교회 성장, 본질이 모퉁이다
1400원 / 2012년

코미널

코미널 - 교회 성장, 본질이 모퉁이다

이 책은, 교회 성장의 핵심인 코미널 즉,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 단언해서 쓰고 있다. 코이노니아(Koinonia)란 우리말로 '종교, 교제, 사랑'이며 미션(mission)이란 사명, 선교 등의 뜻이다. 멀티플리케이션(multiplication)이란 '증식, 번식'인데, 모든 생물은 증식 능력이 있고 증식을 통해 되듯이 거둔 그리스도인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 역시 생명이 있어 증식할 능력이 있고 증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명의 목회자와 한 명의 멘토가 여행하면서 각 여행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분하고 대화하며 풀어가는 방식이며, 영리 권을 자제하며 써술하고 있다.

코미널 - 김 집사의 목양행전

김집사라는 별칭으로 대국목장이라는 하나의 스승과 함께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목회하게 하는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감으로써, 직용권을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이강천 목사
서울신학대학 동 대학원 신학박사
서울신학대학 목회학과 교수
전남 영광교회, 영동중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고, 기독교대학총연합회 총회, 전국교단총연합회 총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 세계기독교총연합회 총회 등에서 목회했다. 목회자들과 목회자를 위한 영성강화와 자유사역, 그리고 교회권 신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가정지 기증, 구세군, 여원 등을 통해 총 1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저서로는 그의 생애사(역사)를 기록한 '나눔-행진, 영혼의 종노릇', '성령사역으로의 초대', '세계를 움직이는 영성', '영양제', 그리고 '자살학대'의 목회이다.

◆한글닷컴북스 출판, 영남출판사 ◆홈페이지 www.gunren.co.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134-3 ◆전화 (02)747-1004 ◆출판물인사

특별기고

“참 교회(眞正한 教會)를 세워 나가자” (상)

(마16:15-18, 요21:15-16)



최낙일 목사

(복음문서선교회, LA동부장로교회 협동목사)

개혁과 교회는 참 교회를 세 가지로 말한다. 참 교회(眞正한 教會) 표지(標識)는 첫째, 말씀(聖經)의 참된 전파-말씀전파는 근본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신앙과 행위에 지배적인 감화를 주어야 함, 둘째, 성례(聖餐과 洗禮)의 정당한 집행 셋째, 권징(勸懲)의 신실한 실행이 있어야 한다.

1.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전파라고 함은,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곧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계시의존 사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목사 안수례나 교회 직분 자(장로, 권사, 집사 안수)를 세울 때나 세례 받을 자는 신앙고백을 할 때에 먼저 수세 자에게 하는 신앙고백 중 첫째가 "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적으로 믿는다"이다.

그러나 잘 믿고자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다 혹은,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읽게 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교회나 교인은 많지 않다.

나는 이런 목사와 이러한 교인을 바라서 인이라고 본다.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마23:3)라고 하였다. 물론, 깨달은 진리가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다(약2:26).

신행(信行)이 없는 교회는 거룩이 없는 속화(俗化)된 교회를 면치 못한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면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없다. 물론 12제자 중 가롯 유다가 있었으니 교회는 불건전한 교인이 있게 마련이며 이것이 땅에 있는 유행교회이다. 하지만 장로, 권사, 집사 '주일성수'가 없다면(주일에 매매하고, 일반식당에 가고, 여행가고 등등...) 그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LA에 와서 보니 목사들도 '주일성수'를 안하는 분들이 허다하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매점에서 주일에 성경과 종교서적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파는 교회도 있다.

참교회 3가지 특징은 말씀·성례·권징의 신실한 실행 은혜와 진리로 교인들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실행이 없는 것은 믿음에 거할 수가 없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다. 행함이 없는 목사의 설교는 은혜가 없다. 능력이 없고, 감화력이 없으며 듣는 교인들의 심령을 움직이지 못한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설교하니(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2:37).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책망함)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 "형제들아 어찌 할고"(행2:37-42) '어~야 다~야' 고기 잡던 어부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교회라고 하면서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은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행(信行)이 없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곧 속화된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전4:20)라고 하였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라! 목사의 설교에 교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라! "물욕 정욕 사욕 빈"(物慾情慾私慾貧)이면 "진리 지혜 능력 부"(眞理智慾私慾富)니라"고 하였으니 물욕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라. 이때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적 지혜가 나오고 능력(能力)이 있다.

2. 권징(勸懲)은 신실하게 집행할 것

교회를 성결케 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씀으로 하고, 둘째는 권징을 한다. 참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나 땅에 있는 교회는 견디기가 어렵다. 지상교회를 '유행교회'라고 한다. '유행교회'(有形教會)는 완전하지 못하다. 교회 안에 이단도 들어오고, 죄도 들어오고, 고라당과 같은 무리도 있게 마련이다.

구약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신약 교회의 모형이다.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함과 배반함과 불신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모세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역설하였지만 안식일을 범하므로 벌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안식일에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있었다(느10:31, 느13:15-22).

구약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나무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다(민15:32-36). 안식일을 범할 때에 그를 죽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神政國家)로서 정치와 종교가 일체(一體)임으로 그러하였. 그러나 오늘날은 교인이 범하면 구약시대와 같이 체벌(體罰)을 하지 않는다. 교회법을 따라 권징(勸懲)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은혜의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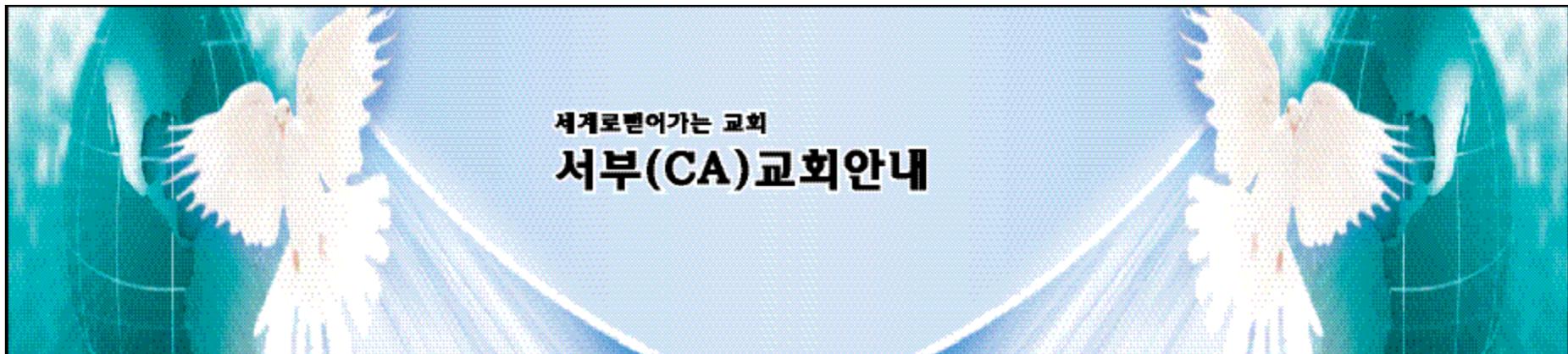
(4면에서 계속) 푸/른/초/장

"들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유혹하게 하는 자는 유혹하여 지리라"(잠11:24-25). 주님은 이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준비된 삶을 살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마태복음 25:1-13절의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열 명의 처녀들 가운데 다섯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했지만, 나머지 다섯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등에 있는 기름만으로 충분하다고 과신한 것입니다. 신랑은 기대와 달리 늦게야 도착했고 모두 잠이 든 채로 있을 때,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잠에서 깨어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가려 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려다가 신랑도 놓치고 잔칫집 문도 닫히고 만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준비됨의 여부입니다. 참된 지혜는 다섯 처녀가 준비된 삶 속에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고, 준비되지 않았던 다섯 처녀는 그 아리석음과 게으름 때문에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머지않아 다가 올 영원한 나라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준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한 마디 말로 강력한 충고를 하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 한 가지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같이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able with 7 columns and 10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감사한인교회', '남성순복음교회', '나성열린문교회', etc., and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73. 처음이 좋았다(3)-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창조주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 계셨다. 일곱 번째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창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언급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고 추측만 할 뿐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할 만한 해석은 없는 것 같다. 여러 해석들 중에 창조 둘째 날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이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공장을 우주 공간으로 보고 창조주간 동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다. 다른 한 가지는 셋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보면 둘째 날의 창조 작업이 셋째 날 물이 드러나기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경우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다 못 마친 이유가 시원치 않다.

창세기 1장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준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칼럼에서도 썼듯이 지구를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고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야 그 빛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빛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 된 지구를 비추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둘째 날을 보면 어떻게?

창조 둘째 날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에 공간(공창)을 만드셨다. 지구는 아직도 물로 완전히 덮여 있어 자기 형상이 발불이와 살 물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마른 땅에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자기 형상들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물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다. 다음 날 물

이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

“그랜드캐넌은 창조 첫날 만들어진 땅, 셋째 날 만들어진 지층,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



그랜드 캐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땅들과 그 땅이 완전히 파괴된 심판의 흔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곳

시기에 좋았더라'(창1:9-10).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혹은 1초 만에 모든 과정을 마치실 수 있는 창조주가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 혹은 창조자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기에서 오래 참으시고 멈추셨을 지도 모른다.

창조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노아 홍수와 매우 유사한 과정이었다. 창조 둘째 날이 끝났을 때 지구가 물에 완전히 덮여 있었듯이 노아 홍수 때도 전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 노아홍수 때는 창조주간에 완전히 만들어진 지구가 산산이 부서졌고 부서져 내린 흙들은 지구

를 덮었던 물속에서 중력 저탁류가 되어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수 마일 두께의 지층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한 과정이 바로 창조 셋째 날 물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 창조주간의 과정과 노아홍수의 과정은 시간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창조주간에 물이 드러나는 데는 몇 시간만 소요된 기적인데 반해 노아홍수 때는 물이 드러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린 전 지구적 심판사건이었다.

창조 두 번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물이 드러나는 과정에 생겨난 지층과 노아홍수 과정에 생겨난 지층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랜드캐넌이다. 그랜드캐넌에서는 확연히 구별되는 세 종류의 땅을 볼 수 있는데 창조 셋째 날에 만들어진 땅, 셋째 날에 만들어진 지층, 그리고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들이다. 그 땅들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진화론적인 구분으로는 각각 시생대, 원생대, 그리고 현생대 지층이라고 부른다. 그랜드캐넌에서는 이 땅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

대를 현생대라고 부른다. 현생대란 생명체의 흔적 즉 화석이 나타나는 시간란 뜻이다. 이 현생대는 또 다시 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석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진화론에서는 이역시 수수께끼다. 그러나 창조와 홍수 모델로는 간단히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인데 고생대는 홍수 초기, 중생대와 신생대는 홍수 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이 문제는 더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랜드캐넌은 현생대 지층 중에서도 홍수 초기(고생대)의 지층만을 보여주고 있다.

홍수 중인 현생대(고-중-신생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지구가 산산이 부서지고 운반되어 쌓여 있는 퇴적암이다. 현재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는 그 땅 위에 신음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창조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자마자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스바나 3:17).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처음이 좋았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다.

탐사여행 중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그 세 가지의 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창조 셋째 날의 땅을 진화론에서는 시생대(40억~25억년 전)라고 부르는데 이 암석은 일정한 규칙이 없는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어서 복합체(complex)라고 부른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첫째 날 지구의 모습을 표현할 때 땅(지구)이 '흙돈'하다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 번역은 '형체가 없는'(formless)이라고 해야 옳다고 한다. 그랜드캐넌의 가장 밑바닥에서 보이는 층이 바로 '형체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창조 셋째 날의 땅을 진화론에서는 원생대(25억~5억7천만 년 전)라고 부른다. 시생대와 원생대가 확연히 다른 점은 시생대는 지층이 없는데 반해 원생대 층은 지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층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시생대와 원생대를 합하여 선(先)캄브리아 지층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현생대의 가장 밑바닥인 캄브리아기 지층부터는 지금과 똑 같은 모양의 화석들이 무수히 발견되지만 캄브리아기 이전인 시생대와 원생대에서는 이렇다 할 화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캄브리아기부터 갑자기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현상을 진화론자들은 '캄브리아기 화석 대 폭발'(Cambrian fossil explosion)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은 그랜드캐넌 지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평한 지층들로 셀 수 없이 많은 화석들이 들어있다. 진화론에서는 이 지층이 만들어진 시

대를 현생대라고 부른다. 현생대란 생명체의 흔적 즉 화석이 나타나는 시간란 뜻이다. 이 현생대는 또 다시 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석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진화론에서는 이역시 수수께끼다. 그러나 창조와 홍수 모델로는 간단히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인데 고생대는 홍수 초기, 중생대와 신생대는 홍수 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이 문제는 더 긴 설명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랜드캐넌은 현생대 지층 중에서도 홍수 초기(고생대)의 지층만을 보여주고 있다.

홍수 중인 현생대(고-중-신생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지구가 산산이 부서지고 운반되어 쌓여 있는 퇴적암이다. 현재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는 그 땅 위에 신음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창조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자마자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스바나 3:17).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처음이 좋았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강/칼/럼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교회에서의 여가 선용과 정신 건강

많은 스트레스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민자로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이런 저런 스트레스는 예상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경제적 문제는 물론, 문화와 언어 장에 그리고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저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도 어떤 심리학자들은 주장합니다만,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가정, 직장, 경제, 결혼, 교육 등의 생활의 문제, 즉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정신질환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신 분열증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여 정신과 치료나 카운슬링을 받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술이나 마약 등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긴장이 해소되는 듯 하나, 중독증으로 더 심각한 정신 질환 상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도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 치료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예방은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개인의 삶(Life)에 대한 만족(Satisfaction)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Self-Esteem)도 높습니다. 자존감이란 쉽게 말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감'을 말합니다. 정신 질환자들이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이 정상인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정신 심리 치료에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의 만족과 자존감을 떨어뜨려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의 만족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 삶의 만족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단순히 어떤 한 종류의 환경 요소적인 해결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스트레스나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는 개념이 정신건강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타인과의 대화기술, 시간관리, 스트레스 및 분노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문화나 취미 활동과 같은 생산적인 여가생활도 삶의 만족을 높이는 주요인들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실제로 스포츠나 문화 예술 활동 그리고 사회 자원봉사활동 등이 규칙적으로 참가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과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가생활은 삶의 생존기술(Survival Skill)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즉, 지겨움과 무료함을 줄여 주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여 삶에 흥미와 보람을 더해 주는 계기로 여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은 좋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여 신체·정신 질병을 예방하는데 유익합니다. 즉, 여가선용이 바로 스트레스 대처 혹은 해소방법입니다.

소그룹과 교회생활의 이론을 통한 교회에서 다양한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취미나 여가 생활의 욕구를 신앙생활과의 연결한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그룹에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신뢰형성의 기회를 주게 되고 결국은 사랑의 연습과 실천의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형성을 통한 소속감과 연대감의 발전은 사랑 나눔의 기회로, 주 안에서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높여가며 영성 발전을 정신건강의 유지책으로 여겨집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김포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통·노)</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수일 3부 예배: 오후 11:30</p>	<p>델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빅스카운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통·노)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통·노) 수일 3부 예배: 오후 1:30(통·노) 수일 4부 예배: 오후 8:00</p>	<p>맨얼교회 담임목사: 권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4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30</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7:30</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통·노)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일 4부 예배: 오후 7:30</p>	<p>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8:00(통·노) 새벽기도회: 오전 8:30</p>	<p>아인사 제자물 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일 3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수일 4부 예배: 오후 2:00</p>	<p>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통·노)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4부 예배: 오후 7:30</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4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전 11:30(통·노) 수일 4부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30(통·노)</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큰부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30</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통·노) 새벽기도회: 오후 8:30(통·노)</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김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5부 예배: 오후 2:00(통·노)</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8:00(통·노) 새벽기도회: 오후 8:30(통·노)</p>	
<p>템파조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통·노)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 예배: 오전 7:00(통·노) 새벽기도회: 오전 5:30(통·노)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하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일 4부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30(통·노) 새벽기도회: 오후 8:00</p>	<h2>하와이지역</h2>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30</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일 4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통·노)</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3부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통·노)</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인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수일 5부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미주한인기독교총연 이사회 창립예배

초대 이사장에 최대명 장로 선임



미기총 이사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이사회 창립총회가 21일(토) 오후5시 미주 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는 1부 경건회, 2부 소개 및 보고, 3부 창립총회로 열렸다.

미기총 이사장인 최대명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경건회는 미기총 이사인 황희석 장로의 기도, 추기훈 집사(사은성결교회)의 특송이 있었으며 송정명 대표회장이 '변

화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롬12: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정명 목사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이다. 지도자는 인격적 변화를 받아야 하며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모습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의 축도에 이어 시작된 2부 소개 및 보고는 박용덕 총무의 사역보고와 김원락 회계의 재정보고가 있었으며 3부 총회에서는 이사장 최대명 장로의 인사말과 이사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미동부기아대책기구 신년모임을 마친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종덕 이사장 추대 새 이사진 조성

미동부기아대책기구 신년하례 및 월례모임

미동부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지난 20일 낮 2012년 신년하례 및 월례모임을 갖고 새 이사장에 김종덕 목사를 추대했다. 또 실행위원으로 유순현 목사, 한기술 목사를 선임했다. 동 기구는 김종덕 목사(뉴욕실로암장로교회 담임)가 이사진을 맡게 됨에 따라 이사회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1부 경건회는 전희수 회계의 사회로 기도 임병남 목사, 말씀 황영진 목사, 광고 박진하 사무총장, 축도 김영환 사업국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을 본문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라며 "기아대책은 가난에 처한 아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구제사역을 한다. 이 사역

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 교회가 부흥하는 복을 받으며 올 한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황영진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텍스트 공제, 홈페이지(www.EAFH.org), 고문추대, 후원행사 등이며 교회별 로 커피(콜롬비아)판매 주문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새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김종덕 목사 △삼십자문위원: 김수태, 유상열, 이종명(이상 목사), 배영란 권사 △임실총위위원장: 황영진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회계: 전희수 목사 △부회계: 권캐더린 목사 △사업국장: 김영환 목사 △기획국장: 임병남 목사 △국제국장: 박미아를 목사 △선교국장: 홍명철 목사 △후원국장: 유순현 목사 △협력국장: 임재홍 목사 △홍보국장: 한기술 목사 이외에 △블록자문: 정용일 변호사.

2월 월례모임은 17일(금) 오전 8시30분 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생명의전화 상담 침묵전화 최다

10-12월 총 817건

생명의전화(대표 바다윗 목사)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상담내역을 보고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생명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것은 총 817건으로 그중 186건이 침묵전화다.

바다윗 목사는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적 한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나누는 이 사역이 때때로 벼락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

때는 꼭 필요한 사역임을 재인식하기도 한다"며 "침묵전화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의 전화가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침묵 전화에 이어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91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구직 및 정보안내문의가 79건에 달하고 있어 직장문제의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이 외에도 부부갈등, 인간관계, 경제문제 등 여러 분야의 상담을 요

청해 왔으며 생명의 전화로 위로받은 54명은 감사와 격려의 전화를 걸어왔다. 생명의전화 상담전화는

(866)365-069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3.1여성동지회 창립30주년기념 제1회 타민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

미주 3.1여성동지회(대표 박은숙)가 주관하는 타민족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총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LA 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히스패닉 3명, 백인 2명, 흑인 1명, 일본계 1명, 멕시코 한인후손(애니깁) 3명 등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한국 문화, 내

가 접한 한류, 한국어 매력, 한인 이민역사' 등 자유 주제로 3분 동안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발휘했다.

미주 3.1여성동지회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증서 등 총 450달러를 지급했다. 주최 측은 1등이 향후 2회 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할 경우 한국 왕복항공권이 부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3.1여성동지회 주최 제1회 타민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석자들.

목회서신

'생각의 틀을 바꿔라'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1882년 날개를 이용한 선풍기가 발명된 이후 127년 만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발명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뿔 뿔된 동그라미 안에서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바뀐다 나오는 선풍기입니다. 이 제품은 2009년 타임(Time)지가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선풍기 회사의 창업자인 제임스 다 이슨은 "왜 선풍기는 꼭 날개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127년 동안 간직해오던 사고의 틀을 단 4년 만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때 자신이 처놓은 사고의 틀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처놓은 사고의 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말을 임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처놓은 사고의 틀을 따라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풍기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바꾸었던 다 이슨의 이야기를 영적인 삶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고정관념 즉 사고의 틀에서 자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고정스러운 사고의 틀이 깨질 때 영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낮아지면 높여 주고 약할 때 강함이 되며 죽음으로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진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고의 틀이 깨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소경의 눈이 열리듯 세상에서 즐기던 고정관념의 틀이 깨져야 합니다. 세상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제9기 예수제자훈련학교, 홍성건 목사 공개강의

예수전도단 나사리교회(대표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제9기 예수제자훈련학교(BEDTS) 공개강의가 홍성건 목사(제주영광대학 학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5일부터 17일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주제로 새생명아시아스 교회(담임 김일형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9기 예수제자훈련학교(BEDTS) 공개강의를 마치고 스태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7일 저녁 강의에서 홍성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로드십을 가져야 한다. 로드십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며 그것은 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증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하는 것"이라 말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환경과 상담 등 사람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꿈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복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모든 삶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p>				<p>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김태민 권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월-목) 오후 8:30(금)</p>		<p>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0:00: 오전 8:45 주일 2:00: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30 김장모임: 오후 8:45</p>	
<p>뉴욕갯세마리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0:00: 오전 9: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9:00</p>	<p>뉴욕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0:00: 오전 9: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45</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태현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월-목) 오후 8:30(금)</p>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45(월-목)</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월-목)</p>	
<p>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희호 원로목사: 방지라 14:00: 오전 7:15 14:00: 오전 10:15 14:00: 오전 11:30 14:00: 오후 7:30 14:00: 오후 8:00 14:00: 오후 8:30</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0:00: 오전 11: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월-금) 목회 기도회: (월)주, 목, 금 8:00</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철 주일 10:00: 오전 11:30 주일 2:00: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p>	<p>통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영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p>	<p>해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 10:00: 오전 7:30 주일 2:00: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 10:00, 11:00, 12:00</p>	<p>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대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p>	<p>유니온연합리교회 담임목사: 박대영 14:00: 오전 8:00 14:00: 오전 10:00 14:00: 오전 11:45 14:00: 오후 2:30 14:00: 오후 8:00 14:00: 오후 8:00</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0:00: 오전 12:30 주일 2:00: 오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1:00</p>	<p>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0:00: 오전 11: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후 8:00</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후 2: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p>	<p>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준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p>	<p>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p>	<p>한미음침교회 담임목사: 박미아를 주일 10:00: 오전 11:00 주일 2:00: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30(월-목)</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323)665-0048 Tel. (718)66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0:00: 오전 11: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45</p>	<p>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p>	<p>아르헨티나 제1교회 담임목사: 최정현 주일 10:00: 오전 9: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 10:00: 오전 11:00 주일 2:00: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8:00</p>	<p>파라과이안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권 목사 14:00: 오전 11:00 14:00: 오전 11:00 14:00: 오전 11:00 14:00: 오전 11:00 14:00: 오전 11:00</p>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성극 "요나" 관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목사/사모를 대상으로 랑케스타 밀레니움 디어터 성극 "요나" 관람을 한다.

▲문의: (646)270-9037/김희복 총무, (718)757-2379/정대영 행사준비위원장

퀸즈YWCA 어린이 동계캠프

퀸즈YWCA가 2월 21(화)부터 24일(금)까지 2012 어린이 동계캠프를 진행한다. 대상은 유치원(4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문의: (718)353-4553

새소망교회 남성중창단 모집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에 위치한 새소망교회(담임 정인석 목사)는 남성중창단을 모집한다.

▲문의: (201)242-9191

'눈오는 지도' 2012년 첫 공연

'눈오는 지도' 2012년 첫 공연이 뉴저지 리지필드 Gallery 1&9(웹사이트: www.gallery1n9.com)에서 열린다.

▲문의: (201)835-8692 snowingmap@gmail.com

크리스천 문화 공간 마련 후원공연

2월 12일 뉴욕 만나교회, YP3형제 출연



서 열린다. "뜨거운 3형제와 함께 하는 명품 찬양콘서트"라는 표제가 붙은 YP3 형제 콘서트로 'YP를 사랑하는 후원모임'이 주관하고 라이프라인미션(대표 유태웅 목사)이 기획한다.

주최 측은 이번 무료 콘서트에 200명만 초청한다며 미리 신청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티켓 신청은 (646)943-1007/서인숙 간사, 이메일 신청은 usallm2020@gmail.com으로 하면 된다.

특히 기독교문화공간에 관심 있거나 크리스천 카페 운영, 크리스천 문화 공간 운영투자를 할 수 있으면 연락을 바란다. 또 크리스천 문화 공간 장소도 찾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646)258-4161/유태웅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 퍼스펙티브스 집중훈련 215기

2월 13-18일 뉴욕총신교회, 등록마감 1월말

뉴욕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집중훈련 215기가 2월 13일(월)부터 18일(토)까지 뉴욕총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린다.

코스 훈련은 18일에 열린다. 퍼스펙티브스 과정은 랄프 윈터 박사와 스티븐 호돈 박사가 공동 편집한 선교학의 필수 훈련과정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 형태로 소개하고 있으며, 성경과 역사 안에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과정이다.

1973년 미국에서 시작된 퍼스펙



뉴욕기독교TV 앱제작 설명회에서 김종철 미주대표가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시대. 모바일로 복음전파

뉴욕기독교TV 무료 APP제작 설명회

뉴욕기독교TV(KCTS, 미주대표 김종철, 부회장 박용기 장로)가 한국 CTS기독교TV가 진행하고 있는 앱(APP)제작 설명회를 지난 18일 후라심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고 한인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무료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문석호 목사(이사장)의 인사와 기도로 시작돼 김종철 미주대표의 사업취지 설명과 데이빗전 CTS기술사의 강의로 이어졌다. 앱제작 진행사항은 1단계-신청서, 아이폰, 스타트업 이미지 이메일 접수, 2단계-안드로이드 앱 등록, 3단계-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 확인, 4단계-나눔사이트 APP Creator에서 앱 꾸미기 교회에서 작업, 5단계-교회 앱제작 완료 후 애플등록 요청, 6단계-애플에 앱등록 심사, 7단계-애플에 앱등록 완료로 마친다.

김종철 미주대표는 CTS가 '클라우드' 개발을 위해 3-4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는 초대형 공간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사진 등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다. 그 데이터란 각 교회들이 올려놓은 것도 되고, CTS가 제작한 여러 콘텐츠도 포함된다. 클라우드를 통해 교회 간에도 서로 자료를 나눌 수 있으며, CTS의 다양한 콘텐츠가 연동이 되며 이후에는 성경과 찬송가 등 교회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CTS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30GB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개발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밝혔다. 더 많은 공간을 이용하려면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교회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718)224-8533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티브스는 약 10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00년에 시작된 선교한국 퍼스펙티브스 과정은 지난 10년간 1만여명이 수료했다.

이번 특별훈련은 선교한국 주관으로 GP, OMF, IMB, GAP, SEED 주최,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 교회협의회 후원으로 열리게 된다.

퍼스펙티브스는 원래 12주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한 주간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사는 한철호 목사(선교한국 파트너스), 김병선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신년축하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잘못된 역사관 바로 잡자"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신년축하예배 및 세미나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회장 한재홍 목사)가 주최한 신년 축하예배 및 우남 학술세미나가 지난 21일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설교는 황의춘 목사가 "해방과 건국의 리더십"(삼상11:12-16)라는 제목으로 했으며 세미나는 김상모 목사를 강사로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서독 아데나워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한편 이날 본 사업회 회원인 "뉴욕우남세계"가 배부됐다. 이 책자는 '역사적 사실자료에 의거 귀중하고 가치있는 내용들이 수록돼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세우는데 역할을 하는 기관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광고했다.

또 지난해 10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제2차 미주총회에 회장단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는 뉴욕에서 미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제1회 청소년 '조인트 윈터 캠프' 비전스쿨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제1회 청소년 '조인트 윈터 캠프' 비전스쿨이 지난 12월 19일부터 1월 17일까지 30일간 뉴저지 패밀리터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캠프에서는 한국의 Child U라는 단체의 학생 25명이 영어와 미국 문화와 생활, 현장실습을 배우는 체험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참가 학생들은 리더십캠프, 라이프스킬 등을 배우면서 긍정적 사고방식과 인생의 목적, 리더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2년 비전스쿨은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201)242-4422로 하면 된다.

New York Kom Tang advertisement with logo and contact info.

Dynamics World advertisement for church printing services.

SBM advertisement for Bible study materials.

iPhone app advertisement for the Christian press.

Yoo Travel advertisement for travel services.

Light & Love advertisement for a ministry.

44-country evangelism advertisement with contact form.

이단판별기준 밝히고 교회보호 공동대처

남가주 교계대표 모여 이단대책 기자회견

남가주교협, 남가주한인목사회, 협 등의 관계자들은 17일 타운 내 JJ그랜드 호텔에서 이단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들의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알렸다.

이날 열린 회견에서 변영익 남가주교협회장은 "2012년을 맞이하여 이단의 경각심을 갖고 남가주의 무성하게 일어나는 이단들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교인들 보호하기위해 의견을 같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단들이 여러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미혹해 교회 문을 닫게 하는 등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민교회는 한국보다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

때문에 경각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가주교협 이단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목사는 "△삼위일체 부인 및 성경 이외의 계시 주장 △행위구원 강조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자신들만 참 교회라고 강변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접근, 기성교회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유언비어로 목회자와 교인간 이간질 △시한부 종말론 강조 △교회 밖 특정 성경공부로 인도 등을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관계자는 "교계가 연합해 세미나 등을 통해 이단의 활동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개 교회 목회자들도 바른 신앙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 기독교계 2012년 이단대책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촬영하고 있는 교계단체 대표들.



남가주한인 목사회 임원들이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목사회 한미기독교회관 건립 원칙 결의, 2-3년 내 2백만 달러 소요예상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남가주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선포했다.

김영대 회장, 김영모 수석부회장, 허귀암 총무 등 목사회 임원들은 19일 오후 5시 타운 내 다호칼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를 지닌 남가주에서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회관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기독교회관 건립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대 회장은 "목사회가 시작된 지 45년이 됐다. 그러나 남가주에 1,300여 교회가 있고 무인목사, 은퇴목사를 포함해 6,000여명의 목사가 있는데도 기독교회관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목회자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회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건립 원칙만 결정됐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관계자들은 회관을 세우려면 대략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200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기독교회관의 규모는 100명 들 어갈 예배처소와 목사회 사무실 및

개와 기독교 이민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홀 등으로 서울 연지동의 기독교 회관을 모델로 세워지게 된다. 이를 위해 목사회에서는 건축, 법률, 재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영입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목사회는 오는 4월 9일과 10일 다호칼비와 북장동 순두부 전 지점에서 일일식당을 열며 체육대회, 찬양제 등과 미국 내외 본국의 기독교 단체들에게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기금마련을 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빛과소리교회 창립예배를 마치고.

빛과소리교회 19일 설립예배 당회장 전재학 목사, 담임 정기원 목사

빛과소리교회(당회장 전재학 목사) 설립예배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LA연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본 교회 담임인 정기원 목사의 사화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영모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 부회장)가 대표기도, 한명수 목사가 특송을 했으며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회장)가 '성공하는 교회'(잠27:2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강일용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와 김사무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정요한 목사(남가주교협 감사), 이정현 목사(남가주교

협 부회장), 박효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가 축사를, 이상현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가 권민을, 김 영 한미동포재단 이사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빛과소리교회는 LA연약교회 내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주일 오후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본 교회의 당회장은 전재학 목사가, 담임은 정기원 목사, 그리고 명예당장에 차준식 장로가 사역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연한 목사(호사랑선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크로스선교회는 북한 현지에 기아치료제인 영양버터 공장과 비타민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농촌에 진료소를 세워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크로스선교회는 또한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비타민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타민 대신 결핵약을 생산하기로 하고 결핵약 지원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북한 비타민공장서 결핵약 생산키로 크로스미션 주최 북한 어린이돕기 후원의 밤

크로스미션(이사장 배훈 목사)주최 북한 어린이 후원의 밤이 22일 오후 6시 JJ그랜드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백낙균 목사(크로스미션 남가주 지부장)의 사회와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크로스미션 방북보고에 대한 동영상 상영과 남가주장로 중창단으로 이어졌다. 이어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

님'(마18: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북한 어린이들의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만큼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려했다.

설교에 이어 김주혜 특송, 이진경 사모, 피터백, 데이빗백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트리오 특별찬양,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회장)의 격려사, 이재민 장로(크로스미션 사무총장)의 사역소개 등이 있었으며 김

서부교계 게시판

재미한인고신 2012년도 총회 강도사 고시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총회장 박종창 목사)는 2012년도 총회 강도사 고시를 오는 10월 22일(월) 오후3시 총회소집장소에서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총회지역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 소지자 혹은 2012년 5월 졸업예정인 자로 본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으로 일정기간 양성받은자이다. 제출서류는 고시원서, 이력서, 신앙고백서, 당회장 평가표, 노회장 추천서, 신학교 졸업장, 성적증명서, 학위기(해당자), 강도사 인허증(해당자), 가족사진 1장(최근 6개월 내) 등이다.

▲문의: 총회 고시부 부장 전병두 목사 (541)741-9649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는 창작성가의 밤을 29일(주) 오후 6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회장(714)393-1439, 총무(310)923-1064

소중환사람들 창립10주년기념 감사예배

소중환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 창립1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30일(월) 오후12시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윤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85-4515, (323)810-0691

새소망장로교회 신년부흥상회

새소망장로교회(담임 박장순 목사)는 교우관 완공을 기념해 '한 영혼을 귀하게'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성회를 27일(금)부터 29일(주)까지 진재혁 목사(한국 지구촌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정은 27일(금) 오후 7시30분, 28일(토) 오전 6시와 오후 7시30분, 29일(토) 오전 8시와 11시15분.

▲문의: (626)577-0191

글로벌선교교회 영적전쟁 세미나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영적전쟁 세미나를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1)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김정환 선교사(선미네스트리 대표, 전 케냐 선교사).

▲문의: (909)396-4441



크로스미션 주최 북한어린이 돕기 후원의 밤에서 강준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SAM CARE 의료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계로 선교로"
 대표 박세복 선교사
 이메일: usbc@samcare.org, seochol@samcare.org
 Tel. (213) 381-1347
 2140 W. Olympic Blvd, #207, Los Angeles, CA 90008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2123.com
 TEL: (213) 276-8900 FAX: (213) 726-890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여 영혼을 구합니다
 The(원) 결혼식, 불인식,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일!"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889명, 유럽에 1천8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되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8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DiscMaster 자동형 복사 프린터
 공 디스크 저가판매!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물리수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및회관
 3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8
 TEL: 213-382-4888 Fax: 213-382-4586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earthlink.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서가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
 기사제보와 분사선교 후원은 환영합니다.
 * L.A.: Tel. (323)665-0909, Fax. (323)665-09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장로교단 설립100주년 기념사업 박차

한장총지도자간담회, 9월1일 연합대회·300대 교회선정

[미선라이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18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을 위한 '한장총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장총은 오는 9월 1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한국장로교 총회설립 100주년 기념 연합대회'를 열고 한국장로교회를 대표하는 300대 교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과 성장, 교육 및 인재양성, 역사성 등 7개 분야로

모델교회를 선정해 사회 속의 한국교회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한장총은 또 4월 4-10일 서울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한국장로교회와 민족'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이외에도 4월 7일 학술세미나와 기념논문집 발간, 5월 중 신학대학 합장제를 열 계획이다. 한국장로교 100년 역사를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다. 한장총은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한국장로교회의 교회성장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신학

및 선교, 기독교 문화적으로 분명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장총은 오는 31일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서울교회(박노철 목사)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나'(사43:18-19)라는 주제로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어 성공 개회를 기원한다. 윤 대표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한국 장로교의 부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장총은 이날 '한 교단 다 체제(한 장로교단 아래 각 총회의 자율권 인정)'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교단 다 체제'와 관련, 헌법 기초 위원들을 추천받고 있다. 윤 대표회장은 "한 교단 다 체제를 조속히 실현하기보다 현재 체제 내에서 우선 가능한 조치부터 취한다는 복안"이라며 "장로교단들은 이번 9월 총회에서 '장로교 통합 선언'을 검토해 달라. 전 장로교단이 연합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한국교회 앞에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1981년 2월 창립된 한장총은 31개 장로교단, 3만 8000여 교회를 포함하는 연합기관으로, 예장 합동 및 통합은 물론 진보적인 한국기독교 장로교회와 보수적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어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선거 무산

법원 "선거·정관개정 금지" 가처분 결정 총회 정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새 대표회장 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한기총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김자연 목사)는 19일 오후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했으나 법원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최 1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기총은 정회 직후 임원 회를 열어 예장 통합과 고신, 합신, 대신, 예성 등 5개 교단에 내린 행정 보류 결정을 해제했다. 또 해임한 이광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복귀시켰다. 예장 통합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해당 교단에 대한 원 교체를 요구기로 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3시12분쯤 "한기총은 방금 전 법원으로 부터 총회는 열 수 있지만 정관 개정은 할 수 없고 새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며 "추후 공문과 공고 등을 통해 차기 대표회장 선거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오후 본보 기자와 만나 "빨리 대표회장 직책을 내

려놓고 싶었으나 더 오래 수행하게 돼 고맙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최성준)는 이날 오후 3시쯤 최귀수 목사 외 10명이 회원을 제한했다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표회장 선거와 정관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문을 퐁고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기총 지도부가 예장 대신 고신 합신 등 일부 회원의 회원을 임원 자격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기총의 향후 일정이 현 지도부와 한기총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 순탄하지, 험난할지 결정되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확연히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마리를 맞대지 않을 경우, 한기총은 다시 싸움판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사업 출발

10일 산정현교회에서 발대식 열고 사업계획 발표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가 100주년 기념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합동총회는 지난 10일 서초동 산정현교회에서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사업 발대식'을 열고 기념교회 설립과 100년사 발간, 세계 개척교회대회 등 각종 사업을 공개했다. 산정현교회는 주기철 목사, 장기려 장

로를 배출한 곳으로 교단의 산 역사를 지닌 곳이다. '은혜의 100년, 빛으로 미래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100년 역사 조명에 나선 합동총회는 오는 3월 27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 전국 목사장로대회, 해외한인선교대회, 9월 기도한국2012, 100년사 발간예배, 인명록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100주년을 맞아 신학적 정체성 강화를 선언한 합동은 5월 중 종신대학교에서 '신학정체성 포럼'을 열고, 11월에는 세계개척교회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으로 지켜온 100년을 돌아볼 예정이다. 발대식에서 설교를 전한 이기창 총회장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교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이단과 종교다원주의로부터 교단과 한국 교회를 지키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순교자들이 지켜온 개혁주

의 신앙과 신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자"며 이러한 마음을 담아 기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발대식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과 총회와 회원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예장 합동은 1912년 9월1일 언더우드 선교사를 1대 총회장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를 개최한 이후 한 세기 만에 1만 여 교회, 성도수 290여만 명의 국내 최대 교단으로 성장했다.

길목사, 한기총 대표회장직 본안소송 승소

서울지법 "돈으로 표 매수하지 않았다" 판결

[미선라이프] 법원이 김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자격에 대한 본안소송(총회결의 무효확인)에서 길 대표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는 20일 "김자연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및 인준 결의는 절차에 흠이 없으며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이 판결과 관련, 한기총 소송대리인 강현중 변호사는 본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길 대표회장에 대한 금권선거 고발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길 대표회장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 소의이익이 없

는데도 재판부가 굳이 판결을 내린 것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구인 길 대표회장의 당선이 금권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금권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길 대표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K모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뇌물로 받은 돈은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그 돈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정회 등 혼란 속에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월 20일 총회 당시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 임명 및 특별위원회 조직은 무효로 판단했다.

"한기총, 화합총회 이뤄야 한다"

교회언론회, 법원결정으로 정회 관련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지난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법원의 결정에 이해정회된 것과 관련해 '한기총, 화합총회 이뤄야 한다'라는 이름의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기총 집행부는 한국교회와 세상 앞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법에서 '총회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폭주

(暴走)했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큰 수치를 안긴 것으로 관련자 모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회는 또 "현 집행부는 '파행'과 '독단'을 버리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자유 공선을 통해 신앙있는 지도자가 한기총 대표로 선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며 "한기총은 결코 가입교단의 상위기관도 아니고 한국교회 권력의 정점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한기총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파행'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총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공적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교단 지도자들에게도 "한국교회 연합에 협력해 다시는 오늘과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한기총 집행부는 한기총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며칠 전 한기총 명예회장이 제 사했던 사안들을 받아들여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각 교단들에게 무리하게 '행정보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차후에도 연합정신을 깨는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서로 간에 고소·고발한 것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셋째는 한기총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한기총 집행부간 상호 비방을 즉시 그쳐야 하며,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만나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넷째는 상처와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단 논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함께 한다 등이다.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핑몰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주 2회 항공 직수입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송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Sit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해 드립니다.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을 보내주세요
▶ 사용자 질문 있으실 경우 1.800.404.1171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2012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시켜드립니다

2012년 미주판 다이어리 지금 주문하세요

다이어리 맞춤제작 + 최저가격 보장

다양한 디자인과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클란(대) | 클란(중) | 멘토링 | 하이움 | 아가페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소 고민한 연례에 세상이 통할 권리를 내어 주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Product

2300 ANSI LUMENS 2000:1
2600 ANSI LUMENS 2200:1
3000 ANSI LUMENS 2000:1
3300 ANSI LUMENS 600:1
5200 ANSI LUMENS 1200:1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어플리케이션도 수전, 칩, 광안, 현종의 교회건축을 전문업체

E7 미기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보되고 달려진 기법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정형 스피커
- USB 호스트 가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반주기, 성경 DMB, 내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개역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단체구입시 한국특가세입합니다.

비어있는 아이들 (1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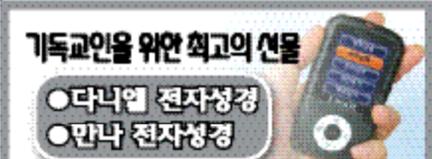
아래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이중통역기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 다니엘 전자성경
- ▶ 만나 전자성경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포럼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언급위원, 드레스·정장양복



미중동부 저가익득! 특별발원

벨라성구사
마이크로수정관대사
ENHANCED OPTICAL FILT
LED LAMP를 사용한 밝은
광도상 벨라성구사 특판
다목적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특판 100% 보증
한국산 LED 조명용 LED
Cool LED를 사용한 밝은
광도상 벨라성구사 특판
다목적

자이언팅에 대한 설명
사전에 사정을 미리 알려주세요
문의(11월 19일 내)
연락처: 02-447-4011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 / 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포럼
0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브라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말씀과 인격이 겸비 된 주의 일꾼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브라질 생명의 말씀 신학교에서 힘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2011년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우리 교수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옛것을 신임상으로 철없는 모습으로 학교에 들어온 것 같은데 3년 혹은 5년 과정을 성실히 공부하고 졸업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는 그들을 보면 대부분 더 성숙해지고 늠름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곳 브라질 대학생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한국이나 미국과 다르게 대학교 선교가 아직

그날 유난히도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 부부가 있었습니다. 호벨토와 아우구스파 부부였습니다. 호벨토는 마우스에 Gillette라고 하는 외국회사의 디렉터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맞지 않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우리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부모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합하고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도록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년전 신학교에 와서 거의 50이 다된 호벨토가 18살에서 20살 난 청년들과 함께 변소청소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부인 아우구스파는 졸업식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호벨토가 한번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에 회사에서 돈도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곳 브라질 대학생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한국이나 미국과 다르게 대학교 선교가 아직

크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CCC나 IVP 등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지만 사역들이 많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 몇 명과 함께 CEU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EU는 브라질 말로 '하늘'이라는 의미인데 Evangelical Community in University의 약자입니다. 그것은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브라질에 있는 각 대학 캠퍼스 안에 한 CEU를 심는 운동입니다.

브라질이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 받지 않는다면 30년, 40년 후에도 브라질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브라질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팀이 브라질의 한교회가 한 대학 캠퍼스를 책임지도록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장호 권애경 선교사 올림
이메일: presb_janghokim@hotmail.com

특별기고



전호진 박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

캄보디아의 짬 이슬람

짬파 왕국의 이슬람화

캄보디아의 짬족은 10세기 경 베트남 중부에 살았던 짬파 왕국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힌두교를 믿었는데 베트남에게 나라를 잃기 직전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지금 까지 캄보디아 무슬림들은 대부분 짬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서서히 크메르인들 중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기미가 보인다.

들이 베트남의 대량학살을 피해 인도차이나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당시 태국 야우타우 왕조의 침략으로 인해 방비가 허술해진 캄보디아로 이주해 온 짬족은 약 60만명으로 추산한다(1822년).

수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전통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 수 없었던 짬족들에게 있어 민족의 동일성은 그들이 당시 갖고 있었던 언어와 종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종

교였다. 무슬림 남자가 다른 종교(불교도) 여자와 결혼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물론 10개 케이스 모두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코란은 무슬림이 "(유대교, 기독교와 같은) 책의 종교"사람들과 결혼을 허용하되 이상승배자와는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캄봉츠낭, 푸사, 바탐방 지방 등 35개 마을의 이슬람은 '짬 이맘 썬'이나 '짬 야헤드'라는 혼합 이슬람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도를 드리는 등 전통 이슬람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때문에 짬족 안에서조차도 무슬림이 아닌 것으로 정죄 당한다.

캄보디아 사회 안에서의 짬족과 이슬람

1970년대 중반 폴포트의 킬링 필드 때 50만명이 학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현재 캄보디아 내 짬족은 전체 인구의 4%에 해당 하는 약 50만명으로 추산한다. 13,690개의 마을 중 426개의 마

다른 아시아국과 같이 왕이 먼저 개종하고 백성 뒤따라 이슬람화 조상 문화 전통 사라지고 언어와 이슬람종교로 정체성 유지 강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종적으로는 아리안 인종으로 보는 학설이 유력하다. 고대 산스크리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안남(지금의 베트남) 중부지방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초기에는 주로 해적으로부터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소극성을 보이나 전성기 때에 이르러서는 당시 동남아의 패주였던 크메르 앙코르 왕국을 침략하며 크메르와의 뺏고 빼앗는 전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짬파 왕국이 크메르 왕국을 정복 통치한 기간은 4년인데 비해, 크메르 왕국이 짬파 왕국을 다스린 시기는 37년에 달한다. 캄보디아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물축제는 1181년 짬파 왕국의 전쟁을 이끌었던 크메르 왕국의 자바라왕 7세의 승리를 기뻐하고 기원하는 동시에 당시의 변역을 회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와 짬어(짬파 종족의 고유 언어)를 통합의 중심으로 사용하여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정통 이슬람과 다른 캄보디아 짬족의 이슬람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다. 이는 교리적 차이보다 정치적 차이가 구분된다. 수니파의 경우, 아랍,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슬람권의 주요 부분은 차지하며 후계자인 칼리프는 민주적인 방식으로만 선출 가능하다. 이에 비해 시아파는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인 모하메드의 직계를 통한 혈통에서만 칼리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다. 캄보디아에 정착한 짬족의 경우 아랍의 영향을 받은 수니파에 속하지만, 위에 언급한 정통 수니파의 성격이 아닌 혼합주의적인 무슬림도 있다.

정통 이슬람은 특이한 전통이 있다. 이슬람은 교리적으로 여자는 다른 종교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무슬림 남자가 다른 종교의 여자와 결혼하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된다. 그러나 Navigating the Rift(2010)에서 밝힌 캄보디아 짬족과 크메르 종족간 결혼에 관한 케이스 스터디는 10건의 사례 중 무슬림 여자가 다른 종교(불교도) 남자와 결혼한 케이스를 8건이나 다루고

에 살고 있다. 이 중 200개는 약 70~100가정 단위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어떤 마을은 1천명까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짬족들은 캄봉짬에 살고 있지만 24개주 중 한 개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 소수일지라도 짬족이 살고 있는 것이 이다. 초기 짬족은 메콩강 물줄기 주변이나 톤레삽 호수 주변 등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살았다. 그러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으로 점점 변화하며 거주지를 이동, 확산하고 있다. 캄보디아 전역에 약 444개의 모스크가 있으며 캄보디아의 행정 구역과 유사하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23개의 큰 단위로 다시 작은 단위로 조직되어 있어 모스크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그들만의 정체성을 이어나오고 있다.

캄보디아 짬족 이슬람의 주요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짬족이 이슬람화된 과정은 왕이 개종하고 이후 백성들이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대부분 나라에서 이슬람화 과정은 '위에 서부터 아래로'이다. 2) 짬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나 문화 전통이 사라지고 대신 언어와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한다.

탄자니아

살롬!

우기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섭도록 퍼붓는 비 소리에 놀라 잠을 깹니다. 땅바닥이 비에 파이고, 비는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뭄에 비를 간절히 바랬지만 너무 많은 비도 농사에 생활에도 적합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2012년 새해에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게 내리는 비에 모든 것들이 다 순복하듯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비가 내리듯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달 열리는 전도대회이지만 이 후마 마을에서의 전도대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이 지어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전도대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떠났던 옛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역사가 이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교회들과 지역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제의 전도집회였습니다.

매월 3박 4일간의 기도시간과 세미나는 성령의 능력을 서로 경험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와 각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 편지



하심에 따라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의 사역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건축에 대한 기도의 제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 기간이지만 비를 피해 건축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동의 화장실, 창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전 기공사, 선교센터 안의 전기시설, 물을 저장하는 지하 저장탱크(120 Tons of Liters), 벽돌 만들기 등 많은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모임이 있을 때 마다 땅을 파서 임시적으로 화장실과 샤워 룸을 만들어 사용하여 불편해 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미주 베델 한인 교회를 통해서 두 동의 화장실과 필요한 건물들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짓도록 해주셔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끝나면 곧 신학교와 어린이 교육사역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나눔 선교회 정경섭 선교사님과 저의 친 형님이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황해인 목

사님 두 분이 지난해 12월에 다녀가셨습니다. 이곳 현지인 목회자들의 삶을 위해 땅과 나무 200그루와 솔라 발전기 11개 세트를 교회 10곳과 이곳 센터까지 솔라 전기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솔라가 설치된 첫날 시골교회들은 개도 닭들도 불빛이 마냥 신기한 듯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동네 아이들은 불빛 밑으로 모여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오랫동안 건축을 하면서 힘들어하던 부분은 벽돌이었습니다.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지 않고 사람의 손을 빌려 수동으로 만들다보니 벽돌이 어떤 것은 단단하고 어떤 것은 부실해져서 사용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녔던 선교부의 도움으로 전기를 이용한 벽돌 기계와 벽돌시멘트 믹서기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벽돌은 선교부 건축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골 교회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 통해서 이곳에서의 사역에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들과 동역자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는데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황광인 선교사
이메일: mast92@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Table with 4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information.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details. Churches listed includ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란교회, 김포제일교회, 광주신임장로교회, 동경중앙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명성교회, 삼보교회, 새연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영로교회, 수정교회, 승평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촌교회, 인양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

Educational Ministry for Korean American Church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기독교칼리지 교수)

1. 성격-교회중심교육

한인교회에 소명을 두고 섬기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해 책임있게 고민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격으로 지난해에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은 "교회중심의 교육(church centered education)"이라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현재 모습을 서술한 것이지만(Descriptive statement), 다른 한편으로는 (1)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2)우리에게 맞는 우리 나름의 기독교 교육의 면면들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일입니다(Prescriptive

statement).
오늘은 먼저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을 그대로 다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한인교회는 미국 교회의 그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물론 할 수만 있다면 매우 좋을 수 있으나—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그리고 한국 교회도) 교단별로 그 기독교 교육을 위해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산하 기관들을 두어 교육 철학, 교육 교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개 교회에서의 교육 사역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교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미국 교

회와는 그 규모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한인교회는 각 교단별로 미국 내 제도권 안에서 따로 중,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규모(성교육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격으로 지난해에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은 "교회중심의 교육(church centered education)"이라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현재 모습을 서술한 것이지만(Descriptive statement), 다른 한편으로는 (1)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2)우리에게 맞는 우리 나름의 기독교 교육의 면면들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일입니다(Prescriptive

적 노력들과 같은 성격의 노력들을—학교들을 세우고 교단 산하 교육기관들을 세워 개 교회를 지원하는 등—우리 한인교회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로, 위와 같이 미국 교회가 행하는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을, 특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 등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 한인교회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인교회가 그 규모가 크고, 우리 한인교회가 단일된 교파로서 혹은 연합체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할지라도 미국 교회가 하듯이 학교들을 세워 그 기독교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수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인들의 경우(특히 최근 수십 년간 이민해 온 한인들의 경

우), 자녀들에게 미국의 선진교육을 경험케 하고 미국 제도권 내에서 그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터에, 기독교 교육을 위해 한인교회가 학교들을 세워 담당한다는 것은 별로 반가운 일도 아니며 설혹 세워진다면 그곳들로 자녀들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역사 깊고 더 우수한 미국의 학교들에 보내고자 할 것이며, 또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해도 이 미국 교단들에 의해 세워진 우수한 기독교 학교들에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신학교 교육 또한 너무나 훌륭한 그래서 한국에서도 애를 써서 그곳들로 유학을 오고자 하는 많은 미국 신학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한인교회가 신학교를 세우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설사 자녀들을 미국 교회가 하듯이 한인교회가 그 기독교 교육적 사명을 위해 세운 학교들에 보낸다 순처도, 그 세워진 학교들의 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인들만을 위한 기독교 학교들이라면 그 배타성 때문이라도 그 당위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맞는 우리 한인교회 나름의 기독교 교육의 면면들은 무엇이며, "교회중심의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규모 작은 한인교회, 미국교회 기독교 교육적 노력 답습 못해 한인교회의 중, 고, 대학교, 신학교 건립은 당위성 없어

미국 교회는(그리고 한국 교회도) 교단별로 그 기독교 교육을 위해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산하 기관들을 두어 교육 철학, 교육 교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개 교회에서의 교육 사역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교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미국 교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신자의 피난처(시119:113-120)찬79장

행악자들이 맹렬하게 활동하는 세상에서 신자가 성경을 피난처로 삼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113). 시인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붙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마귀가 노리는 목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약1:5-7).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114). 시인은 신자의 은신처와 보호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에 헛

된 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성경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이 말씀의 통제를 받게 했습니다(116). 이것은 성경만이 환난 날에 피할 유일한 방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118-120).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은 헛된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침내 쓰러지처럼 버림받게 되지만 진리인 성경만이 세워질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성경말씀에 숨기를 잘하는 지혜자가 됩시다.

화 핍박 받는 성경(시119:121-128)찬101장

구원의 역사는 성경을 중시하여 모든 시비가 가려 집니다. 시인은 그 핍박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째, 간구함으로 이겼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살며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확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간구가 환난을 이깁니다. 둘째, 주의 증거를 깊이 알고자 원했습니다(124-125).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세밀한 진리 말씀에 착념한 시인은 성경의 검인 말씀을 유효 적절히 사용할 줄 알

았기 때문입니다(렘6:17). 그러므로 시인은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128). 셋째, 말씀의 가치를 굳게 믿었습니다(127).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기에 모든 일의 최우선권이 말씀을 아는 것이며 법사에 성경만이 절대표준인줄 확신하고 그것을 목표와 방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128). 성경의 생사와 같이 하려는 자는 죽지 않으며 죽어도 살아납니다. 인자와 그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밤에 성경의 위력을 체험하십시오.

수 기이한 말씀(시119:129-136)찬238장

모사와 기묘자(Wonderful counselor)인 하나님나라의 왕(사9:6), 예수그리스도는 놀라운 말씀인 성경 계시로만 증거되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명의 빛이 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130). 말씀을 여는 분은 주님이시고 열린 말씀을 통해 진리가 깨달아 집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둘째, 영혼의 양식이 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131). 광야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가 주어져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던 일은 성경을 먹고 사는 신자의 삶을 보여준

분명한 그림입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높낮이는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신8:3). 셋째,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135). 엠마오의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진 체험은 주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의 얼굴을 볼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민6:22-26). 성경 앞에 기이한 체험을 기대하며 진지하고 정직하게 섬시다.

목 의의 원천인 성경(시119:137-144)찬276장

의의 근원인신 하나님은 세상에 성경을 두심으로 의를 행하시기를 발견한 시인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 권위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일에 앞서 성경 자체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성경의 완전순결한 말씀입니다(140). 성경이 최고의 순도를 가진 영원한 의의 원천임을 발견한 시인은 최대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습

니다. 도가니 속에 연단된 순수한 은처럼 인간의 모든 오류에서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 성경을 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눅16:29). 셋째, 성경의 의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144).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 곧, 성경의 의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 의를 세우시다.

금 말씀 묵상(시119:145-152)찬500장

원수에 둘러싸여 곤고한 밤을 지나는 시인의 주업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임을 돋보이는 본문은 어떻게 묵상했다고 말합니까? 첫째, 새벽에 묵상했습니다(147-148). 새벽미명에 슬픔을 쫓아 기도하시러 가신 주님처럼 그는 한밤을 시작하자마자 그날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영적 근원이 그의 경건과 기쁨이며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는 시간이었습다. 둘째,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145).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을

바로 깨닫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성경이 열려집니다(마6:6). 셋째, 성경이 모두 진리라는 확신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으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기에 충분한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전체의 구속의 흐름과 그 흐름이 적용되는 현자인 이웃 관계의 진리의 흐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바로 읽고 다른 말씀과 관련시켜 따져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성경화가 나타나기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시1:3).

토 오직 성경(시119:153-160)찬379장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표어는 개혁자들의 확신이기 전에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성경만이 신자를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153-156). 고난 속에 있는 교회와 신자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말씀이고 그 진행과 완성이 모두 말씀의 접촉함으로 이루어 집니다(벧전1:21 골2:7). 둘째, 성경만이 신자의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158-159). 시인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열심은 큰 애착으로 표현했습니다. 질고가운데서도 사랑하고 핍박 속에서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떠난 원수의 행위를 볼 때 깊이 슬퍼한 것은 그 애착의 표현입니다. 셋째, 성경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160). 모든 성경의 강령이 진리임을 확신한 것은 모든 일의 중심은 성경 구절, 사상, 방법, 가치기준 그리고 성경의 크고 작은 요약과 적용이 진리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성경관입니다.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향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신 신바람 목회의 부식들!

NON-SEN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향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향안 목사 저
- 판형 : 4x6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향안 목사가 2011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문헌의 새 반향!

Why Christmas?

- 왜? 크리스마스란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가?
-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마당으로 만들어 가는가?
-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배 127편
- 판형 : 신국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례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에 대한 심방설교 제공
- 주문 수령인름 '책갈피' 제공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철화, 김동, 소망 결단기 있는 영상비디오 & CD

www.kcdc.net

824-3004, 5004

한국에서 만납시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강사



김웅도 목사
 • 금란교회 동사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양익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송용걸 목사
 • 신천교회
 • 현지대회장



이영선 목사
 • 불티모어장로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송규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장영준 목사
 • 본지 발행인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개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 한국현지등록: 50불(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 (02)436-5770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 (Senior 1,160불)-아시아나항공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 (Senior 1,130불)-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제6차 중,남미 선교대회 및 단기선교



선교대회 취지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중,남미 도처에서 선교에 진력하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 원주민 목회자 들을 초청하여 위로, 격려해 한인선교사 들과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현지 원주민 목회자들의 질적 향상과 복음적 바른신학 강화를 통해 남미 선교전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현지인 목회자들과 협력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5차에 걸쳐 오대양 육대주를 순회하며 대회가 개최되어 일본은 물론 과테말라 도미니카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3회째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선교대회와 단기선교 사역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성령이 주관하셔서 남미에 기적이 열매가 넘칠 것이며 참가자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함은 물론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품게될 것을 확신한다

주 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16:9)

- 일 시 : 2012년4월16(월)저녁-20(금)새벽 (4박5일)
- 장 소 : Av.Carabobo 1253Cap.Fed.Argentina (Tel:5411-4631-1788)
- 주 최 : WVS(월드비전신학대학), FEMO선교회, WEC 초교파 남미선교대회준비위원회
- 후 원 : KWMC, 크리스찬타임스,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신문

- 주강사 : 서 삼정 목사(KWMC의장/아틀란타제일교회)
이 승중 목사(몽골국제대학이사장/KWMC의장/예수마을교회)

●특강강사



박영희 목사
-전한국총신,대신대총장
-WVS총장



최광언 목사
- 남미신학교학장
- 제일장로교회IND



김웅철 목사
- 전 MBC 탤런트
- FEMO선교회장
- 순복음시온성교회



이종석 목사
-WVS 운영이사장
-과테말라사랑의교회



이정남 목사
-NEA선교회장
-엘파소소망교회
-C국신학교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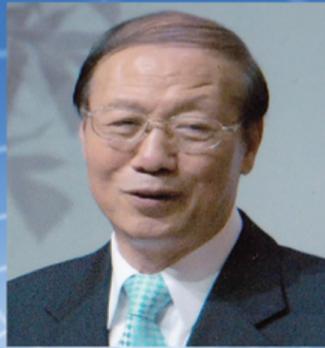
오용주 목사
- 전CRC교협총회장
- 디트로이트한빛교회



서옥자 사모
- 아틀란타 제일교회



이수형목사
- 기하성
- 흥천아름다운교회
- 기하성총회신학원 교수



서삼정 목사



이승중 목사

참가신청 안내

등록처

대회집행위원장 : 김현국 목사 (등록접수처)
Rev, Paul H. Kim / Address : 841 N. US Hwy 15 Dillsburg, PA 17019
Tel : 717-432-9035 / CP : 717-576-5370(paulkim1127@yahoo.com)

문의 및 연락처 : 실무대회장 강준원 목사
Rev, Joon Won Kang / Address: 5319 Fernhill Dr Charlotte, NC 28217
Tel: 704-665-6243 / CP 803-665-1599 (cpmcpastor@yahoo.com)

참가대상 : 교파를 초월해 고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가 할수 있음

등록 마감일

- 1차) 2012년 3월 3일 / 2차) 2012년 3월 24일 (2차 등록시 할인혜택없음)
1)등록비(식비 일인당 1식\$8)11식=\$90
숙박비(1박)일인당\$20)4박=\$80=합계 \$170
2)부부인 경우 1차 등록시 \$250 /2차 등록시는 부부도 동일함 \$340
3)24시간 스낵,음료수,과일,등 무제한 제공함이다
4)등록시와 함께 필히 체크로 납부해야 하며 불참시라도 일체 반환을 불허.
5) Check Payable / To: FEMO / For : 남미선교대회 참가 등록비
6)입국시 세관신고서에 기록할 주소는 대회장소 주소를 기입 바람.

항공권 구입안내 및 관광안내

구입처: NY지구여행사 대표 권대비(Debbie Kwon), 각자 구입해도 무관.
항공권 구입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가장 저렴함. 약\$ 정도
Tel : 1-800-203-1518/212-594-3553(earthtravelny@yahoo.com)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브에노스 행 항공은 밤에(일일 1회) 출발(NY,GA기준)
다음날 아침7시-8시에 도착하니 가능하면 주일저녁 비행기로 출발 바람.
한국여권은 무비자, 미국여권은 공항에서 비자를 받아야함.
현지 날씨는 한국 초가을 정도.

관광안내

- ▶ 1박2일 이과수폭포 관광 희망자는 등록시 신청해야 관광이 가능.
(비용은 항공료 숙박 포함 일인당 약 \$600-700 정도)
- ▶ 17일(토)은 시내 민속촌 관광, 주일은 모두 현지원주민교회 단기선교사역에 동참
4/23(월)오전 이과수 폭포 여행후 24(화)저녁 귀국, 25일아침 미국 도착.
- ▶ 폐회 후 20(금)-22(주)(3박4일) 체류하실 분의 숙식경비는 주최측에서 제공함
예정. 등록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능.

선교일정표

- 2012년4월16(월) 오후6시-7시 개최예배
8시30 첫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17(화) 오전특강 9시-11:30 (통역) / 오후특강 2시-4:00 (통역)
오후 8시30 둘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18(수) 오전특강 9시-11:30 (통역) / 오후특강 2시-4:00 (통역)
오후 8시30 셋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19(목) 오전특강 9시-11:30 (통역) / 오후특강 2시-4:00 (통역)
오후 8시30 넷째날 저녁선교대회
2012년4월20(금) 오전 6시-7시 폐회예배 /
폐회 예배후 단기선교 사역은 자원 하는자에 한해 실시
2012년4월20(금)-22(주) 현지 원주민교회 목사들과
한인선교사/대회참가자 합동 단기선교실시

조직

고 문 : 박영희 목사(WVS총장) 고석희 목사(KWMC 사무총장)
고인호 목사(PCA 코디네이터) 최광언목사(남미신학교학장)
명예대회장 : 서삼정 목사 (KWMC 의장 / 아틀란타제일교회)
대회지도위원: 강세대 목사(PCA) 정을기 목사 (SBC) 김동욱 목사(예장합)

공동대회장: 김웅철 목사(FEMO 선교회장 / NC순복음시온성교회 / AG)
이종석 목사(WVS 운영이사장/ 과테말라사랑의교회 / KAPC)
이정남 목사(NEA 선교회장 / 엘파소소망교회 / KAPC)

실무대회장:강준원 목사(FEMO 이사장 / 열방선교교회/PCA-CKC증경회장)
부대회장 : 김영만 목사(FEMO 선교회 상임이사 / NC벨렐교회 PCA)
안영섭 목사(GM 선교회장 / TN 크리스찬교회)
대회집행위원장: 김현국 목사(WEC선교회장 / PA제일교회 / PCA-CKC증경회장)
대회총무 : 신동민 목사(FEMO이사 / NC목양교회PCA)
진행분과 : 차영창 목사(SBC / NC 열린교회)
예배분과 : 이용주 목사 (FEMO 이사 / NC매튜장로교회 ARP)
선교분과 : 임종백 목사(FEMO이사 / NC베다니교회 ARP)
안내분과 : 차규선 전도사(FEMO 이사, PCA)
음악분과 : 문정민 권사(FEMO 이사 / SC선교회교회 PCA)
섭외분과 : 지혜로 집사 (FEMO 이사 / FL색스한인교회)

미국준비위원장 : 강준원목사(FEMO선교회 이사장 / WVS 국제홍보이사장 / 열방선교회)
현지준비위원장 : 최광언목사(남미신학교학장 / 제일초,중학교장 / 제일장로교회)
위원 : 김웅철목사(AG) 이정남(KAPC) 오용주(CRC) 정을기(SBC) 이용주(ARP) 홍종수(PCA)

현지유치 위원회

총괄본부장 : 양선옥 목사(아르헨티나 제일장로교회/ IND)
총무분과 : 위성열 장로 / 통역분과 : 윤창우 목사
영상분과 : 황창구 장로 / 봉사분과 : 최형섭 장로
동원분과 : 홍덕유 장로 / 취사분과 : 김희순집사, 이규옥권사
음악분과 : 이재준 장로

참가신청서(여권과 동일하게 기록요망)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동반 배우자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 CP:	E-mail:		
출석교회:	직분:		
교 파:	담당목사:		
이과수폭포 관광참가(여행비 본인부담) 예() 아니오()			